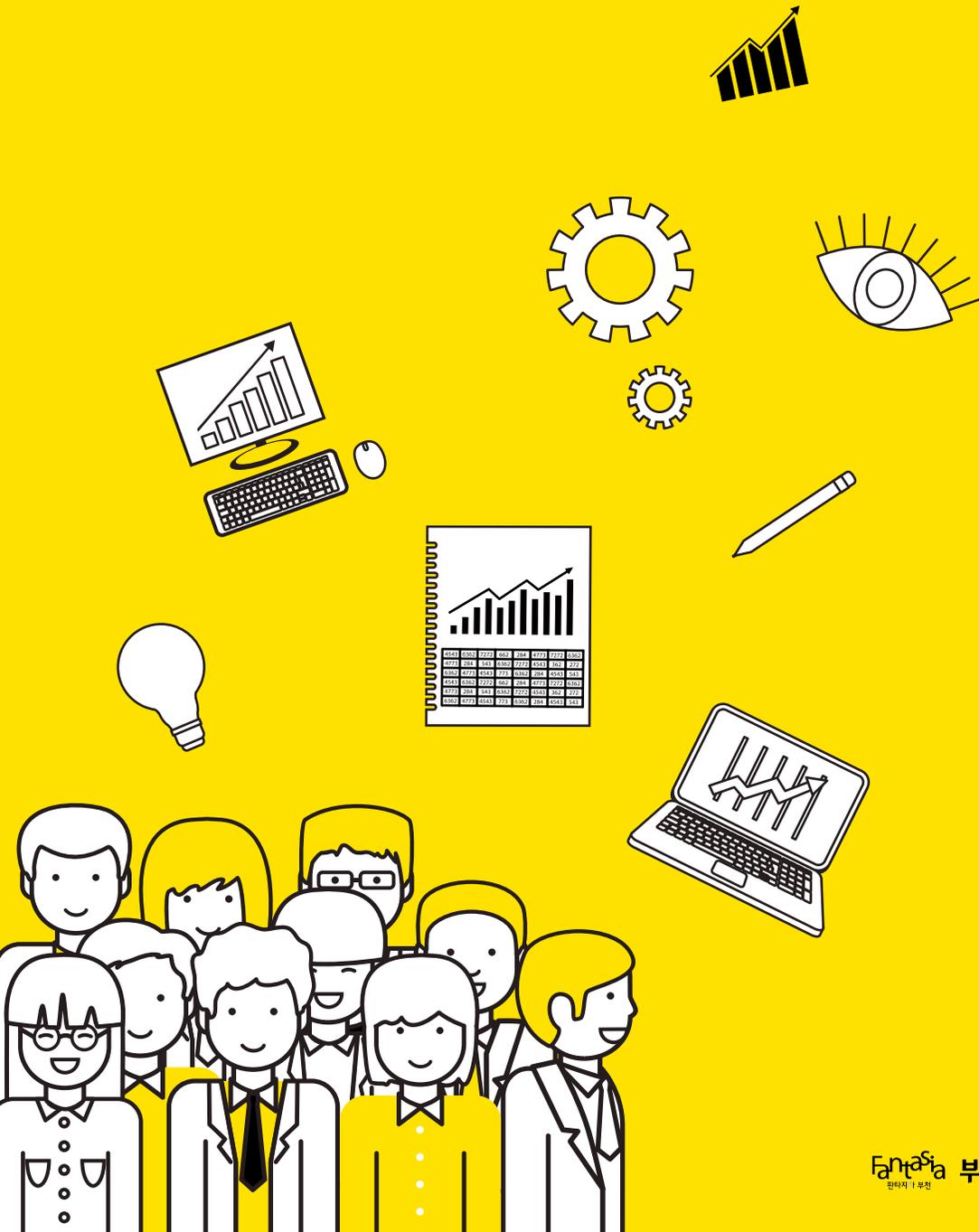


Survey Book

장기성, 김재민, 김광민

#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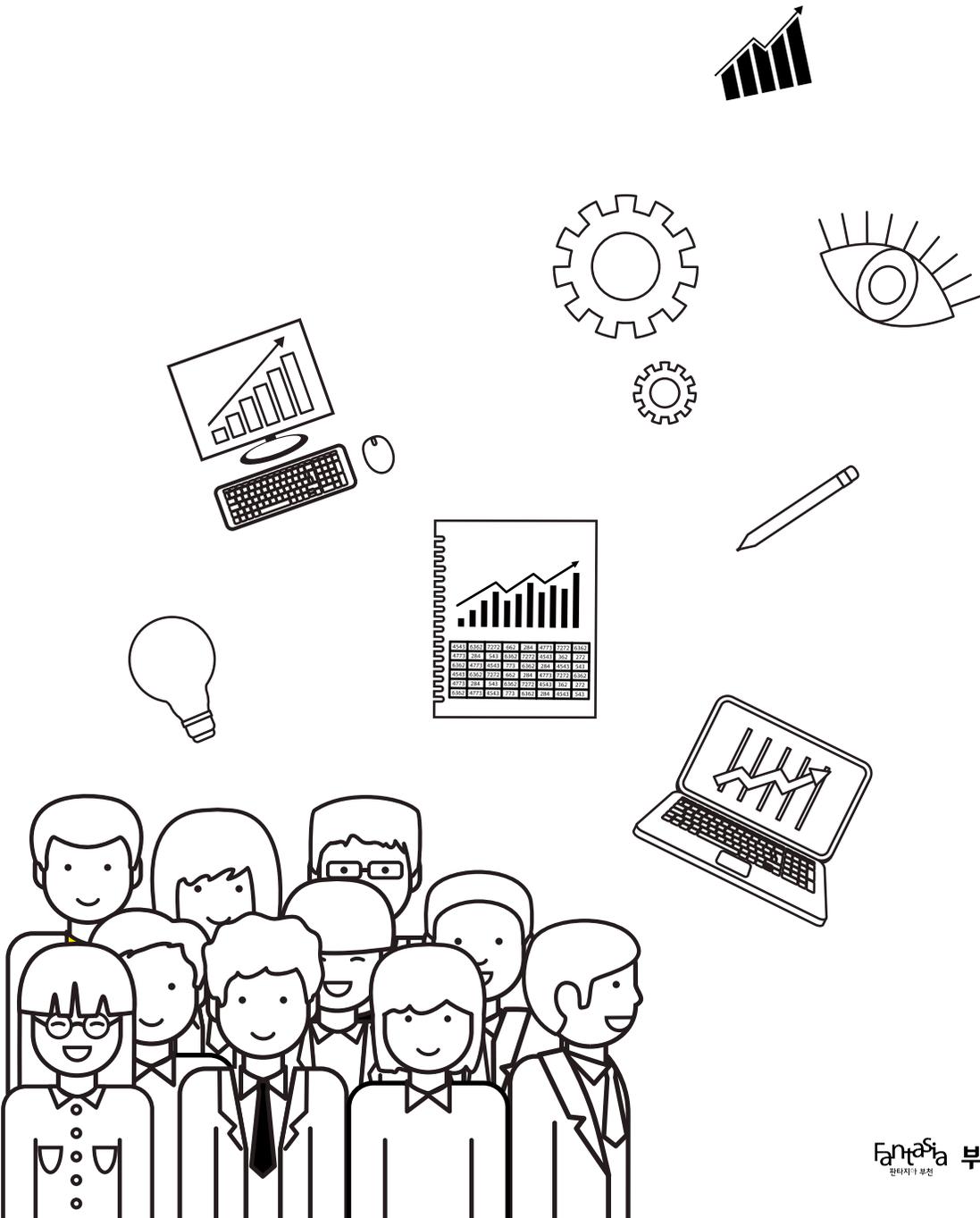


**Survey Book**

장기성, 김재민, 김광민

#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본 최종보고서는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7년도 연구용역에 의한 연구결과임



◆ 연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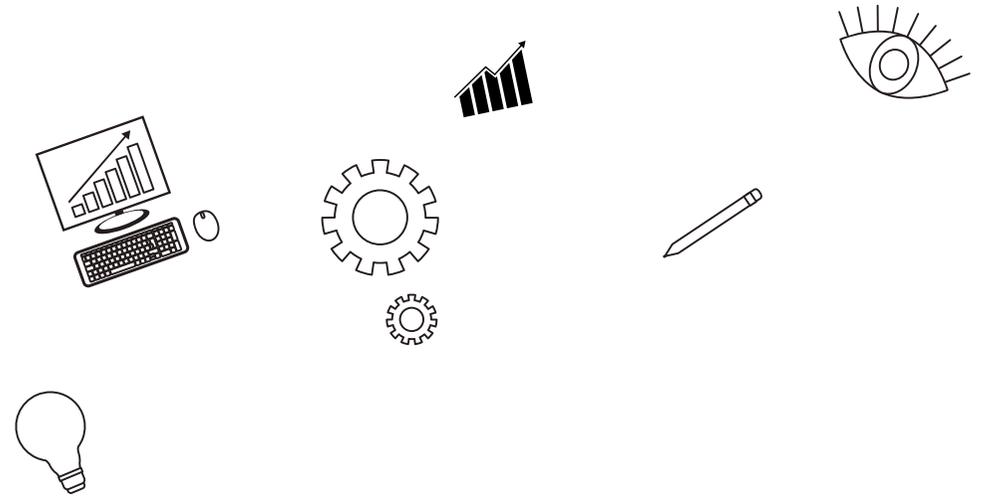
- 연구책임 :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장기성
- 연구원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재민
- 정책자문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김광민

# CONTENTS

제1장 서론 1	03	(1) 직업가치관	74
제2장 이론적 검토	09	(2) 희망 일자리의 조건	78
1. 개념정의	09	(3) 일자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82
가) 청년	09	마) 노동권리 인식 수준	85
나) 청년일업	10	바) 양립사회적 특성	88
제3장 청년고용정책	15	(1) 현재 삶의 만족도	88
1. 국내 청년고용정책 - 법률	15	(2) 진로 장애요인 인식	90
2. 국내 청년고용정책 - 정부	18	(3)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	94
가) 일학습병행제	18	나) 일양생활	95
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9	(1) 일양 활동	95
다)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20	(2) 경제 양황	97
라) 취업영공패키지	20	아) 혼인과 출산	103
3. 해외 청년고용정책	21	자) 정책적 견해	105
가) 영국	21	제6장 정책제언	111
나) 미국	22	1.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 기본계획	111
다) 독일	23	2. 고용일대 조사의 정례화	115
라) 일본	25	3. 맞춤형 고용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116
마) 호주	26	4. 청년 고용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117
바) 프랑스	28	5.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지원 확대	118
제4장 청년고용 일대	33	6. 노동자 권리의식 교육 의무화	118
1. 대한민국 청년고용 일대	33	7.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119
2. 부천시 현황	35	8. 정주의식의 함양과 함께 안정적 삶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119
제5장 설문조사 분석결과	41	9. 정주의식 함양과 함께 안정적 삶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120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1	참고문헌	123
2. 조사도구와 자료분석방법	41	〈부록〉	
3. 분석결과	43	부록1 부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일대조사 설문지	127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3	부록2 부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2차 일대조사	145
나) 취업경험	50	부록3 중앙정부 부처별 청년고용정책	147
다) 구직활동	59	부록4 지방자치 단체별 청년고용정책	151
라) 희망하는 일자리	74	부록5 취업진로상담 정책(진로지도/취업상담)	156
		부록6 교육훈련 정책(교육/훈련비 지원)	159
		부록7 청년 창업 정책(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164

# 표

〈표 5-1〉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일대조사 설문지 구성	42	〈표 5-33〉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73
〈표 5-2〉 응답자 일반적 특성	43	〈표 5-34〉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증상	73
〈표 5-3〉 영별에 따른 연령대	44	〈표 5-35〉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75
〈표 5-4〉 응답자 가구 특성	45	〈표 5-36〉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	78
〈표 5-5〉 응답자 주거특성	46	〈표 5-37〉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체 유형	79
〈표 5-6〉 학력	47	〈표 5-38〉 학력에 따른 희망 산업체 유형	80
〈표 5-7〉 영별에 따른 학력	48	〈표 5-39〉 희망하는 근로형태	81
〈표 5-8〉 연령대에 따른 학력	48	〈표 5-40〉 영별에 따른 희망하는 근로형태	82
〈표 5-9〉 고등학교 유형, 전공계열	49	〈표 5-41〉 영별에 따른 희망 월평균급여	82
〈표 5-10〉 연령대에 따른 취업경험	50	〈표 5-42〉 일자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83
〈표 5-11〉 학력에 따른 경험한 일자리 수	51	〈표 5-43〉 노동자 권리 인식 수준	86
〈표 5-12〉 연령대에 따른 경험한 일자리 수	52	〈표 5-44〉 연령대에 따른 노동자 권리 인식 정도	87
〈표 5-13〉 연령대에 따른 총 일한 기간	53	〈표 5-45〉 현재 삶의 만족도	89
〈표 5-14〉 가장 길게 일한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53	〈표 5-46〉 진로 장애요인 인식	91
〈표 5-15〉 연령대에 따른 종사상 지위	54	〈표 5-47〉 영별에 따른 진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94
〈표 5-16〉 연령대에 따른 근무형태	55	〈표 5-48〉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	95
〈표 5-17〉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 업종, 업무(직무)	56	〈표 5-49〉 지난 2주간의 주된 활동	95
〈표 5-18〉 연령대에 따른 월평균 급여	57	〈표 5-50〉 일상생활 행동 패턴	96
〈표 5-19〉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58	〈표 5-51〉 학력에 따른 월 최소 생활비	98
〈표 5-20〉 영별에 따른 미취업기간	59	〈표 5-52〉 영별에 따른 월 최소 생활비	98
〈표 5-21〉 연령대에 따른 미취업기간	60	〈표 5-53〉 생활비 / 현재 겪는 어려움	99
〈표 5-22〉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 일하지 않는 이유	62	〈표 5-54〉 연령대에 따른 부채(빚) 소유 여부	100
〈표 5-23〉 영별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	63	〈표 5-55〉 연령대에 따른 부채(빚) 원인(복수 응답)	101
〈표 5-24〉 학력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	64	〈표 5-56〉 부채 원인별 부채 총액	102
〈표 5-25〉 미취업기간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	65	〈표 5-57〉 인용 현황 / 부채탕감 인식	103
〈표 5-26〉 연령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지/방문 경험	66	〈표 5-58〉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	104
〈표 5-27〉 연령대에 따른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다닌 경험	67	〈표 5-59〉 미취업자 취업 정책	106
〈표 5-28〉 전문 직업훈련학교 경험	68	〈표 5-60〉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청년 정책	106
〈표 5-29〉 영별에 따른 구직활동 계획	69	〈표 5-61〉 미취업자를 위한 부천시 우선과제	107
〈표 5-30〉 미취업기간에 따른 구직활동 계획	70	〈표 6-1〉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	112
〈표 5-31〉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	71	〈표 6-2〉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부천시의 우선과제	113
〈표 5-32〉 일자리를 갖는데 가장 어려운 점	71	〈표 6-3〉 청년정책의 우선과제	114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1장 서론



# 제1장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주요한 사회의제로 떠오르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타개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보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맞물려 악화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노동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좋은 일자리는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정홍준, 2016:1).

2017년 10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인구는 2,775만 1천명이고 실업자는 89만 6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별 고용률 현황은 15-29세 42.2%, 30-39세 75.6%이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하였지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2%로 0.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8.6%로 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와 구직 단념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그러나 실업의 실질 체감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1999년 이후 청년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1.7%에 이르고 있다.<sup>2)</sup> 즉 청년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 현실은 4명 중 1명만 취업에 성공할 뿐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1명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실업은 노동관련 쟁점에서 주요 화두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청년 고용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질 낮은'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에게 불안정한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의 질과 상관없이 양적 증가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이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1) 통계청의 2017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이라도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2%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률 역시 전체 61.3%인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청년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질 낮은 일자리' 문제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서울신문(2017. 11. 16). 10월 청년실업률 8.6%... 18년 만에 '최악'

개인의 책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질 낮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생존 방책으로 취업시장에 떠밀리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 비정규직 중 청년층의 비율이 25-30%에 이르며, 매우 낮은 정규직으로의 이동가능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뿔으로 작용하고 있다(정홍준, 2016:2).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경제지표와는 달리 청년고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노동과 안정적인 일자리, 즉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면서 노인세대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30대 청년 고용불안은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수립은 청년 고용의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부천시 역시 청년 인구가 3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취업 청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있다. 부천지역 일자리 현황과 민·관 협력 시스템 모색을 위한 고용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sup>3)</sup>에 따른 책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 차원의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을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대 미취업자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존재한다. 역차별 비판의 요지는 취업 연령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늦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한국경제, 2013. 7. 2. ‘역차별 논란’ 청년고용 촉진법, 나이제한 29세 → 34세로 확대).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고용지원의 경우에만 34세 이하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러한 상황은 34세 이상 미취업자, 공공기관 이외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실업 문제를 특정 세대의 특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세대의 규정 유연화와 사회전반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병행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치로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 청년 인구는 부천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세대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부천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일자리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부정책<sup>4)</sup>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부천시의 청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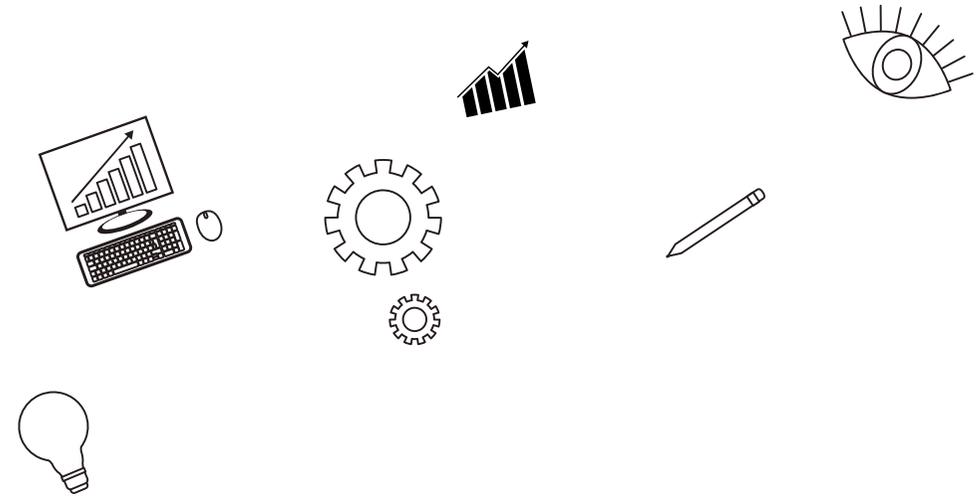
고용문제는 노동자 생활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특히 사회에 갓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현황에 대해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일자리 경제를 통해 소득 성장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김종권, 2017).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은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중앙 집중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역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의 책무로서 청년고용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다. 즉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시스템 안착과 함께 지방정부의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질 때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4) 정홍준(2016)은 민주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정부의 청년고용을 위한 재정지원, 창업지원, 인턴사업 등은 모두 단기적 일자리 창출 방안에 불과하며, 특히 청년인턴제 사업장 확대정책은 저임금·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더 나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임을 지적하였다.

부천시 역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노동정책에 기반 한 고용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가고 있다. 청년실업 증가와 안정적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생활과 경험,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취업지원 로드맵 수립과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정 목표에 한 단계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제2장 이론적 검토



## 제2장 이론적 검토

### 1. 개념정의

#### 가) 청년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연령대의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사전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청년은 특정 연령대로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청년 자체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 역시 상이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34세”로(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시행령) 규정하고 있다. 청년을 가장 넓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4).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청년채용 현황 및 2012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청년채용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대비 신규채용 인원은 2010년 4.58%, 2011년 5.40%, 2012년 6.29%였고, 29세 이하 채용률만 보더라도 2011년 3.0%, 2012년 3.3%에 이른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입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35세 이상인 사람은 1% 남짓에 불과하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전원 34세 이하였다.”<sup>5)</sup> 이를 통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즉 신규채용의 경우 대부분 35세 미만 연령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상 취업가능 최소 연령은 15세이다(제64조 제1항). 따라서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을 정의할 때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상 미성년자 기준이 18세 이하(제4조)인 점과 근래 청년실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을 청년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553 결정

## 나) 청년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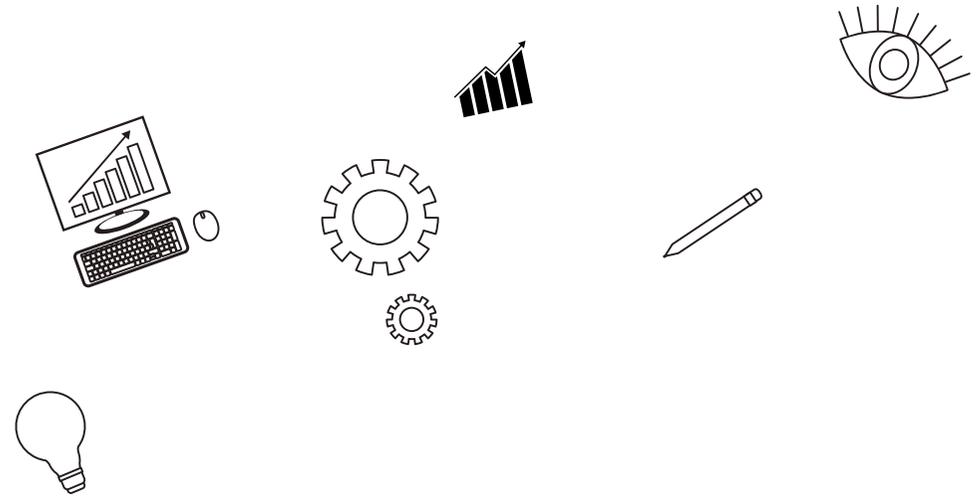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는 청년 니트(NEET)에 한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OECD에서는 니트를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제외되며,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집단(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실질적인 실업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 고용의 실태 및 연구를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니트의 개념은 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개념정의와 연령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니트의 개념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영국의 사회적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 1999)는 주 초점집단을 중등교육단계에서 학교로부터 이탈한 16-18세의 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Andersen(2014)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청년실업자를 의미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비활동 또는 가사 종사자와 교육 및 훈련자로 구분되는데, 청년 니트는 이 중 비활동 또는 가사 종사자에 해당하는 청년실업자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노동경제백서’(2004)는 니트를 의미하는 청년 미취업자는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연령이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영국과 달리 관심 대상이 30대 초반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청년 니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남재량(2006)은 지난 1주 동안 취업자가 아닌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 가사나 육아를 하지 않고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오민홍(2007)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20세에서 29세의 청년층으로 청년 니트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금재호 외(2007)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개인 중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등에 통학자(단, 취업준비나 취업을 위한 교육은 니트에 포함된다),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의 활동자를 제외한 사람을 청년 니트로 규정하였다.

OECD, 영국, 일본 등의 청년 니트에 대한 개념을 보면, 청년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한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니트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및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노동연령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등 두 집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20대까지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30대까지를 니트의 범위로 설정한 연구도 있다(주희진 외, 2017).

한국의 경우 2015년 OECD 발표에 따른 청년 니트 비율은 18.5%로 OECD 평균 니트 비율인 1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20대 니트 비율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청년 니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청년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니트의 규모가 증가된 원인으로 대학진학을 증가로 표현되는 ‘고학력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에서 찾고 있다(이금진 외, 2017).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제3장 청년고용정책



## 제3장 청년고용정책

청년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 주축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중소기업청 등 여타 정부부처들 또한 저마다 청년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은 그 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수적으로도 많은 청년고용정책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련 법 규정과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대표적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고용정책을 법률과 정책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는 해외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국내 청년고용정책 - 법률

정책은 필요에 따라 또는 필요를 예측하여 만들어진다. 특히 필요에 따른 정책의 개발은 ‘고용’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고용정책은 고용촉진이 필요할 때, 즉 실업상황이 발생 또는 지속되거나 그럴 것으로 예측될 때 수립·시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양적으로 풍족한 일자리를 경험해 온 대한민국에서 고용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고용정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며, 구체적으로는 ‘실업문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시기일 것이다. 당시 정부는 ‘대졸자 취업현황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기본방향’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학졸업자의 취업상황이 예년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안정, 고용창출,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실업자 생활안정 등 다섯 가지를 내놓았고,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시켰다. 그 이전까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은 거의 없었으며, 고용정책 중 일부에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청년고용정책을 규정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아닌 2004년 1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었다. 이 법에 포함된 청년고용 규정은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제8조), 각급 학교의 중소기업체험사업의 실시 지원(제11조),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제12조)이었다. 이후 2007년 8월 3일 개정(2008년 7월 4일 시행)으로 각급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학 연계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비용 지원(제10조)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법에 기술된 청년고용과 관련된 조항들은 청년실업자의 보호 및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법의 명칭과 제1조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보호대상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통해 본격적으로 청년고용정책을 다룬 것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었다. 이 법은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5호로 제정되어 2004년 6월 6일 시행되었다. 당초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일이었으나, 2007년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2009년 10월 9일 개정되면서 법명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개정에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법령 개정 이유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설치(법 제4조),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법 제8조의4),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실시(법 제12조)를 규정하게 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13년 5월 22일 다시 개정하는데, 이때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 의무를 고용 의무로 변경하였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모두 한시법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청년실업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던 법률 제·개정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 외의 다른 법률에서도 청년고용 관련 조항들이 신설되었는 바 그 시기는 모두 2010년 이후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의 법령 개정 이후라 보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가 201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우대정책(제4조의2)이 2015년 2월 3일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 조항들에 비추어본다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청년고용정책이 다른 법률로도 확산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산 영역이 중소기업의 고용 및 창업에 한정되어, 법의 목적을 청년 고용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될 법 하다.

예상 밖으로, 대한민국의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청년이 등장한 것(제25조)은 2010년 1월 1일 이었다. 그 전에는 청년의 고용촉진 지원을 규정할 뿐이었다. 법 제25조의 표제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인 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청년을 여성 및 고령자와 함께 대한민국 고용시장에 있어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평가는 청년실업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듯한 한시법으로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상충된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의 기본 조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라 볼 수 있다. 본 조는 제1항에서 국가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제2항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제25조의 신설 시기가 2010년으로 다른 청년고용 관련 법령의 제·개정보다 늦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시행된 시점부터는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관한 기본조항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리매김은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 관련 개별법들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 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근거 법률로서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기본법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원칙 및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며, 이는 기본법이라는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법률의 기능으로는 ①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 ②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③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 확보, ④ 행정의 수행 준칙에 대한 제시, ⑤ 국민에 대한 메시지 전달 등이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고용 관련 개별법으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외에도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① 청년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 ②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 마련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한 경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또 제8조에서는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가, 제13조에서는 정부의 청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기업 및 학교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한다. 제3조 제2항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촉진정책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제3조 제3항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데,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양승광, 2017).

## 2. 국내 청년고용정책 - 정부

### 가)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도는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이수자 평가를 통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무분별한 학력과 스펙 경쟁이 아닌 직무능력 위주의 채용을 바탕으로 한 기업맞춤형 교육훈련이 제도의 핵심취지라 볼 수 있다. 학습근로자들은 기업으로부터 교육훈련과 더불어 임금을 수령하고, 정부는 기업의 제도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일학습병행제도는 2013년 말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2016년에는 3만 명이 지원 받았다. 참여 기업 중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제도참여가 저조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 부족으로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당 평균 훈련인원은 6명, 평균 훈련기간 17개월, 평균 임금은 163만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승환 외(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의 연간 순편익은 학습근로자 1인 당 평균 891만 원으로,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 시 높은 수치를 보여,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일학습병행제의 성과는 제도 목표가 양적 지표의 확대(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확대 등)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벤치마크(benchmark) 국가들과의 기업 여건, 인식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도 부실화에 대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취업경력 1년 미만(취업경력이 1년 이상이라도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 가능)의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제조업은 1,000인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7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500명 이하 등, 벤처기업 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미취업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제고를 사업취지로 삼고 있다.

기업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청년인턴은 인턴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함과 더불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원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다(정규직 전환되고 1개월 근무 시 20%, 6개월 근무 시 30%, 1년 근무 시 50%).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50~6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최대 390만원 지원까지 지원한다(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고용유지 시 195만원, 12개월 고용유지 시 390만원).

2009년 제도도입 이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정규직 정착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타 청년고용정책들과 같이 양적 지표 확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질적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인턴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적용제외 규정,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제도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준비, 인적자본축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잔심부름, 청소, 문서복사 등의 단순반복 업무 사례들이 보고되는 만큼 현장지도 및 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신청절차 간소화, 참여근로자의 보호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 다)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K-Move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인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해외통합정보망, K-Move 스쿨, K-Move 멘토단, K-Move 센터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16년 기준, 지원 대상 및 취업인정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3,000명에게 교육비,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은 1인당 최대 580만원, 6개월 이상 또는 600시간 이상의 장기교육은 최대 8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 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과 기타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체계로써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고졸이하 비진학, 대졸 이상 졸업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최종 학년 재학생. 다만, 고교 재학생인 경우 18세 미만도 가능하나 35세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I 유형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여성가장,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II 유형은 만 18~34세 청년, 최저 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 내의 단계별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대상자에게 참여수당(I 유형: 최대 25만원, II 유형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며,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 참가자에게 훈련기간 생계지원 차원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최대 월 284,000)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속 기간별로 차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김유빈, 2015).

## 3. 해외 청년고용정책

### 가) 영국

영국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전에 실시되었던 각종 청년 고용관련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체계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1998년에 이전 청년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한 청년 뉴딜프로그램(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 정책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복지급여 수급자나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6가지 ‘뉴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 중 청년 뉴딜프로그램(NDYP)은 청년층(18~24세)이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층 고용관련 프로그램이다.

청년 뉴딜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18~24세 이하의 실업자는 전통적으로 구직활동의 의무를 가지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청년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관계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년뉴딜 조연과 지원 그리고 훈련 등을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이들을 최대한 빨리 취업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청년 실업자는 의무적으로 NDYP에 등록해야 한다. NDYP 등록자는 크게 3단계인 입문단계(Gateway Stage), 선택단계(Option Stage), 그리고 추후단계(Followthrough Stage)에 걸쳐 훈련을 받는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입문단계에서는 개인 조연자(Personal Advisor)와 함께 구직자의 고용적합성, 취업능력 제고, 구직활동, 훈련기회 그리고 취업 후 자세와 복지급여 등에 관한 심층적인 일대일 직업상담 및 조언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인 선택단계에서는 입문단계 기간 중 취업을 못하면 들어가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분야, 전일제 교육훈련분야, 자원봉사활동분야, 그리고 환경관련분야 중 의무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 처음 두 개의 대안은 마지막 두 개의 대안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두 개의 대안은 “비협조적인” 참가자에 대한 일종의 위

협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액이 삭감되거나 급여가 정지된다. 이 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마지막 단계인 추후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는 장기적으로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개인상담사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마지막 단계에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구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뉴딜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다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언제라도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하며 계속적으로 구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조언자 뿐만 아니라 뉴딜 멘토를 활용할 수 있다. 멘토는 지역에서 도움을 주며, 주로 청년이 계속적으로 직업을 찾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멘토의 상담이 필요하면 개인 조언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청년 뉴딜프로그램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행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각 단계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운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 나) 미국

미국정부는 1990년대 말 이후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이 대두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집중하였다. 미국의 청년시장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부의 직접적이며 적극적개입이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개입은 특히 노동시장에 매우 취약한 청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인 청년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가 있는데, CEDEFOP(2008)은 도제제도를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기업 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차적인(alternating)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도제제도는 1911년 위스콘신 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며, 1937년 연방회의에서 국가도제법(National Apprenticeship Act)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 미국에서는 독일과 다르게 뚜렷한 직업훈련 과정이 존재하지 않지

만 고등학교에서 경력 및 기술교육 과정(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ourse, CTE)에 등록할 수 있다. CTE 과정은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과정에 걸쳐 이수할 수 있으며, CTE 과정을 통해서 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준비 및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직업교육은 경력 클러스터(career cluste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뿐 아니라 진학준비도 지원해준다. 진학준비는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진학에 대한 준비까지 교육받는다. 도제과정을 마친 후 수수료증을 받음과 동시에 등록제과정에 따라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훈련 기간은 1년에서 6년 정도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4년의 기간이 많은 편이다.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2008)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미국 학생 90%가 CTE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과정을 하나 이상 수료하였고, 그 중 21%는 집중적인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제제도를 관리하는 업무는 미국 노동부 교육훈련실(ETA) 산하에서 담당하며, ETA는 도제과정이 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에 따라 도제제도를 등록도제프로그램(RA: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이라 표현하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미국 도제제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3~4년 지속하며 수학, 언어, 및 직업관련 내용을 포함한 코스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견습생을 필요로 한다. 많은 국가들의 도제제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미국 시스템은 중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성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5명 중 1명만 25세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30세이다.

미국 내에서 도제제도가 유용한 직업교육제도로 평가 받은 것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론과 실기의 통합을 가능하게하고, 학교교육 과정을 질이 우수한 훈련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우수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며,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산업계와 학교가 긍정적인 대화를 전개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성을 갖고 있는 제도로 간주된다.

## 다) 독일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국가의 기업가나 근로자 및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청년실

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07년 11.0%에서 2014년 6.9%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가나 EU 15개국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취업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로는 독일의 여러 제도 중 이원화도제제도(Dual Apprenticeship System)라고 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기회가 확대되면서 고용률도 일관되게 높았다.

2012년 유럽정상회의에서 논의한 “Rethinking Education”에서는 도제훈련과 듀얼시스템이 핵심적인 어젠다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밖에도 OECD(2010), ILO(2012) 등에서도 청년 실업률 감소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집중 조명하고 있다. 독일은 도제제도의 전통에 기반한 기업 내 이원화도제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일자리 기반 학습 강화를 통한 교육·훈련과 고용간의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현장과 학교를 오가면서 교육을 받기에 교육과 취업이 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슈미트는 특히 독일의 도제제도를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간주하는데, 그 주요한 이유로 이 제도가 취업노동과 교육을 결합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 부담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청년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독일의 이원화도제제도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훈련방식과 함께 국가, 기업, 노조가 공동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와 경제가 상호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원화도제프로그램은 학생들이 3일 내지 4일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고, 나머지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이 끝나면 국가공인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받는다. 기업은 이원화도제제도를 통해 필요한 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며, 훈련생의 동기와 기업에 대한 신의를 높여 훈련생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훈련생은 자격증을 획득하고, 수당을 받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때 높은 취업성공률을 이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라) 일본

일본은 헤이세이 불황(1991년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불황)을 거치면서, 일본 기업들이 종업원 고용 시 신입사원 채용 방식에서 경력자 채용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차 변화되었고, 결국 청년층 고용시장은 점차 악화되었다. 이를 타개하려는 일본정부는 2003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하나로 청년자립 도전계획 수립에서 교육단계, 직장정착에 이르는 경력(career)형성과 취업지원, 청년 노동시장 정비, 청년 능력향상과 취업선택 지원확대, 취업기회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에 의해 2004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연결형 교육시스템’인 일본형 이원화제도(dual system)를 도입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연결형 교육시스템으로 2004년부터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목표는 학교졸업자가 취업이 안됐을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인으로 육성하여 직장에 정착시킴으로써 학교졸업자(중퇴자 포함)가 프리터나 무업자로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기업의 구인내용의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독일의 학교교육제도인 이원화제도를 응용하여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취지로 기업실습 또는 OJT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Off-JT)을 병행적으로 실시하고 수료 시에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형 이원화제도는 주 3일은 전문학교 등에서 수업을 듣고, 주 2일은 실제 기업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은 독일의 이원화제도와 비슷하다. 즉, 기업에서 훈련생으로서 장기간의 실습훈련을 한다. 반면에 제도의 대상이 전문고교(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 등을 두는 공업고교나 농업고교 등) 등의 재학생이며, 학교교육제도라기 보다는 직업훈련제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독일과 다른 특징이다. 따라서 직업교육보다는 직업훈련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일본형 이원화 제도는 문부과학성의 모델사업으로서 주로 전문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후생노동성이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 등 두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후생노동성의 제도는 실시주체에 의해 ‘교육훈련기관 주도형’과 ‘기업 주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교육훈련기관 주도형’은 교육훈련기관이 청년을 ‘훈련생’으로 선발하고 나서,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입안하여 이들을 훈련시킨

다. 학습(Off-JT)은 자신의 훈련 시설에서 실시하고, 기업실습은 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에 비해 후자의 '기업 주도형'은 훈련생을 선발하여 기업이 청년을 유기(有期)의 단기고용(파트타임) 등으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하여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입안한다.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미취업자 양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업의 경우 이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훈련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양질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정규고용 이전에 이 제도를 통해 개인들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한 후 정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이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취업가능성이 높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정사원으로 고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계약제로 일하면서 동시에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수료 시 능력평가에 의한 채용에 있어서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 마) 호주

호주의 도제훈련은 영국의 도제훈련 제도를 받아서 실시하던 전통적 도제훈련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적 도제훈련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일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누구나 도제훈련에 지원가능하다. 다른 과정과 다르게 중등교육이상의 학력이나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한 학생, 이직을 희망하는 취업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재학생도 학업과 직장,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며 도제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일제, 시간제, 학교기반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운영되어 학생, 직장인, 미취업자 등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제제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도제훈련은 참여 기업의 고용주와 도제훈련 참여자 간의 공식적 훈련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호주 연방정부, 호주 주정부, 산업계 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 ISC), 호주 도제훈련 센터(Australian Apprenticeship Center: AAC), 등록훈련기관(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RTO), 그룹훈련기관(GTO: Group Training Organization: GTO), 고용주, 도제훈련생 등의 이해관계자가 있다.

호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1명의 견습생과 1개 기업이 운영되는 도제훈련 외 1:다(多)로 훈련센터의 기능과 유사하게 특정 기관에 모여 고용훈련을 받

고 실무기술 및 OJT는 각기 다른 기업에 가서 훈련을 받는 형태인 Group Training 이 운영되고 있다. Group Training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Group Training Organization(GTO)라 부르며, 채용까지 연계하기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도제훈련 형태를 많이 선호한다. 훈련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업을 경험해볼 수 있어 고용의 질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호주의 도제제도는 직업교육 및 훈련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으며, 전통적 도제훈련제도(Apprenticeship)와 훈련생제도(Traineeship)를 포함하고 있다. 도제훈련제도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미용업 등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전통적인 직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와의 계약기간이 3-4년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제훈련제도와 마찬가지로 훈련생제도 역시 훈련생과 고용주가 1-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으며, 1993년부터 성인들도 연수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연수제도가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1월부터 종전의 도제훈련제도와 훈련생 간의 차이를 없애고 이를 포괄하는 제도로 신도제제도(New Apprenticeship)가 도입되었다.

호주 도제제도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큰 변화는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된 신도제제도(New Apprenticeships system)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종전의 도제(apprenticeships)와 훈련생(traineeship)간의 차이를 없애고, 이를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이 제도 하에서는 종전 제한되어 왔던 직업 영역의 한계를 없애고, 그동안 고정되어 왔던 현장 훈련과 집체훈련 시간을 고용주와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직무능력 중심에 기반을 두고(competency based)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신도제제도를 통해 학교공부를 계속하면서도 국가직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호주의 학교기반 도제제도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계되는 취업 경로를 제공해 학생들이 재학 중에 도제 또는 훈련생 과정을 시작해 직장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지만 2009년도 수료된 모든 도제 과정 중 6%에 불과했다.

호주 도제훈련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연방정부에서 AAC (Australian Apprenticeship Center)를 지정하여 도제훈련 등록과 고용주 및 도제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AAC와 STS(State Training Services) 모두 도제훈련의 행·재정을 지원한다. 그러나 AAC는 연방정부와 계약하여 지역에 제한

없이 고용주 및 도제생을 위한 One-stop shops를 제공하고, STS는 연방정부와 계약하여 해당 주정부 관할 지역의 도제훈련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한다(김혜원 외, 2015).

## 바)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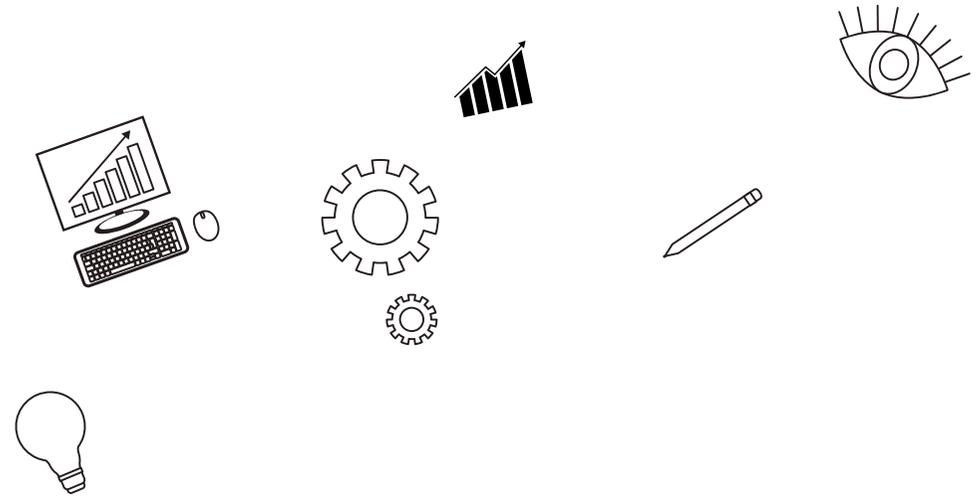
프랑스의 청년고용정책은 크게 청년보장제도, 첫 고용에 대한 지원, 미래고용 그리고 세대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는 2013년 11월부터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9월까지 총 61개 구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확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고용상태, 직업훈련 과정 및 학교교육 과정에 모두 속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소득이 월 524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 있는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상 청년들을 고용 혹은 직업훈련 과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 면담, 직업과 관련된 단체 아틀리에, 일자리나 실습 및 수련 제안에 대한 의무적 이행을 조건으로, 1년 동안 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교통비, 주거비, 전화비 등)과 미래의 진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별 수당으로 461.26유로가 지급되고,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중간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청년보장제도에 해당되어 관리 및 지원을 받은 청년 2명 중 1명이 1년 후에도 취업상태이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도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 10개 시범사업 구역의 결과로 8,400명의 청년층이 계약을 맺었고, 2017년까지 10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고용에 대한 지원(L' aide a la premiere embauche)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기업이 처음으로 고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프랑스의 약 120만 개 중소기업(TPE-PME)들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기업이다. 첫 고용에 대한 지원제도는 2015년 6월 9일부터 2016년 6월 8일까지 연령 조건이 없이 첫 근로자 고용(1년 이상 계약직 혹은 정규직) 시 보조금으로 최대 4,000유로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이 이루어지고 6개월 후 신청을 하고 3개월마다 보조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며, 정부의 고용관련 다른 보조수당과 중복될 수 없다. 고용정책 중 가장 최근 시행되어 통계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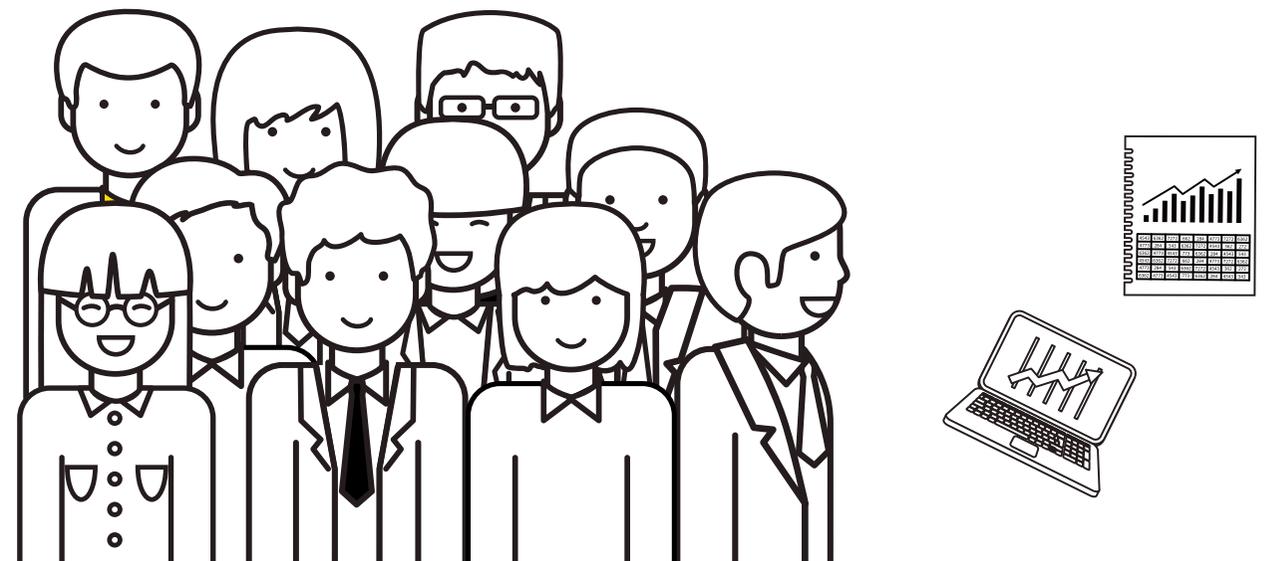
미래고용(L' emploi d' avenir)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16세 이상 25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30세 이하)로 현재 어떠한 곳에도 고용된 상태가 아니며,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이고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기업 또는 사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주당 최소 17시간 30분, 최대 35시간의 1~3년의 기간제 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일반 근로계약과 다른 점은 고용주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최저임금(세전)의 최소 35%, 최대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고용된 청년에게 튜터를 정하여 직업훈련 및 상담, 근로 중의 어려움에 대하여 개입 및 중재를 하며, 근로상황들과 관련하여 지역기관에 정기적으로 알리고 계속적 관리를 받는 것이다. 2015년 7월 발행된 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4년 9월에 이미 미래고용 원래 목표치인 고용계약 150,000건이 달성되었다. 한편 미래고용제도는 세대계약(le contrat de generation)과 맥락을 같이한다.

세대계약(contrat de generation)은 2013년 3월 시행된 제도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고령층의 고용유지와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층이 고령층으로부터 기업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아(튜터) 기업의 경쟁력 증진 및 더 나아가 세대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6세 미만 청년의 정규직 고용과 기존의 57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시에 연당 4,000유로를, 최대 3년 동안 고용주(300인 미만 기업 해당)에게 지급된다. 청년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를 동시에 채용할 경우 재정지원 금액은 8,000유로이고, 3년간 총 24,000유로가 지원된다. 고령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안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2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발표된 중간조사에서 제도의 목표치가 연 75,000건(5년에 500,000건)인 데 반해 오직 51,768건(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포함)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중소기업(TPE-PME)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더구나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관리부가 따로 없어 고용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꼽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을 하는 등 관련 기업인이 참여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오미애, 2016).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제4장 청년고용 실태



## 제4장 청년고용 실태

### 1. 대한민국 청년고용 실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3년 39.7%로 전년(40.4%)보다 다소 낮아진 기간이 있었지만 2009년 40.5%를 기록한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6년에는 4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OECD 청년층 평균 고용률인 76.6%(OECD, 2016)의 절반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15~29세의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 고용률을 세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령대인 25~29세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69.0%를 기록하였다. 20~24세 연령대의 경우에는 1980년 이래 연평균 0.38%p의 감소 추세 속에 2015년 46.1%의 고용률을 기록하였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인 15~19세 연령대는 7.9%를 기록하여 청년 고용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징과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정책대안이 모색되어 왔는데,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청년고용 문제가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들의 높아진 눈높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편화 및 이례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을 고용 취약계층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돌리는 것은 선후관계 파악에 있어 오류가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상대적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대변되는 2차 시장으로, 이중구조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1,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 내 차별화를 통해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학위 획득을 합리적 선택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고용의 문제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차별성 획득 노력이 고학력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고학력을 갖춘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학력이 상향평준화됨에 따라, 학위는 더 이상 고용에 있어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하나의 문지방(threshold) 역할에 그치고 만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또 다른 형태로 고용 차별성을 확보하여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십 등 소위 ‘스펙쌓기’로 불리는 취업준비활동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청년 취업자들이 수행하는 취업준비활동은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역량과는 대부분 거리가 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은, 늘어난 취업준비활동이 취업 자격요건 기준을 상향시켜, 또 다른 수준에서의 경쟁 차별화를 요구하였고, 이는 다시 취업준비활동 증가로 이어져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지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늘어난 취업준비활동은 학업기간 내 휴학, 졸업 유예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게 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취업준비활동 증가가 인적자본축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취업자격요건 충족 역할에 그치게 됨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기회비용을 과도하게 유발시키고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대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취업준비 유형별, 일자리 질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취업준비활동의 임금증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82.1만원~262.7만원으로 휴학 유·무경험자,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휴학 유경험자의 경우, 휴학 무경험자에 비해 전체 일자리 임금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31.7만원), 좋은 일자리 기준에서는 그 격차가 11.3만원으로 줄어들어 취업 재수 기회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휴학 기간별로 구분해 보아도, 취업준비 휴학기간의 증가에 따른 월평균 임금의 상승 추세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준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청년들의 근로여건 실태는 청년고용 문제에 있어 우려를 더하는 점이다. 취업준비관련 근로를 수행함에 있어, 청년학습근로자 다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년들은 직무역량 학습과 경력취득의 기회로 인턴제 참여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규직을 대체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고용문제는 그 특성상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투자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청년고용문제의 자연적 해결을 기대하는 장기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 시기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며, 현재 청년고용 문제의 심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이고 즉시적인 고용정책 역시 간과될 수는 없다(김유빈, 2017).

## 2. 부천시 현황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인구의 팽창과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증가했던 부천시 인구는 2017년 10월 현재 849,143명(등록외국인 20,833명)이며, 남성이 423,487명, 여성이 425,656명이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334,031세대이며, 세대 당 2.5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은 20대 125,520명, 30대 130,172명으로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인구는 255,69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반면 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58,287명이며, 노령화 지수는 80.7%에 이르고 있다.

부천시의 재정현황은 2017년도 예산규모(세입)에 따르면 1조 5,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4,172억원이 적은 상황이며, 재정자립도는 38.62%, 재정자주도는 60.31%이다. 또한 2016년 말 기준, 채무 현황은 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침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고,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부행정의 저비용·고효율 경영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자체수입 확충 등 재정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도의 경우 예산은 1,975억원(일반회계 1,342억, 특별회계 632억)이며, 재정자립도는 32.3%였다. 부천시 소재 기업체는 총 10,533개(2017년 7월 현재)로 집계되었다.

2016 부천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인구는 869,165(등록외국인 포함)명이며 15세-29세는 180,259명(21.2%)이며 30-39세는 132,981명(15.7%)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57,164명으로 총인구의 77.5%에 해당한다. 경

제활동 인구는 439,000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이며, 취업 인구는 419,400명, 미취업자는 19,500명으로 고용률이 57.5%, 실업률은 4.4%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15-29세는 70,300명, 30-49세는 206,800명이다. 이에 기초하여 인구대비 청년 고용 현황은 대략 20만명 전후로 60%수준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약 40%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본통계에 따르면 부천시 소재 전체 사업체 수는 59,231개이며,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는 49,275개, 회사법인인 7,064개, 회사이외법인 899, 비법인인 1,993개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단독사업체는 56,637, 공장·지사는 2,117개, 본사·본점은 477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총 종사자는 282,639명이며,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종사자 수가 244,575명으로 대부분 개인사업체와 회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참고로 2017 시정주요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인구는 871,785(등록외국인 포함)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20대는 126,300명이며, 30대는 131,986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 2016년 경제지표 조사에 따르면, 부천시 거주에 대한 의향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쇼핑시설’, ‘주변환경’을 제외한 교육환경, 양육환경, 주차·교통, 문화시설, 방법·치안 등의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이유는 삶의 질이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과 일자리로 인해 이사를 계획한다는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취업자 중 85.9%는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였다. 그리고 취업자 중 54.5%는 상용근로자이며, 자영업자 18.2%, 임시근로자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고용형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71.1%, 72.2%로 높은 편이었으며, 반면 임시 근로자 및 일용직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 소재지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부천 이외 소재 비율이 59.9%로 부천보다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부천시에 소재한 사업체가 70.8%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만을 가지고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통해 부천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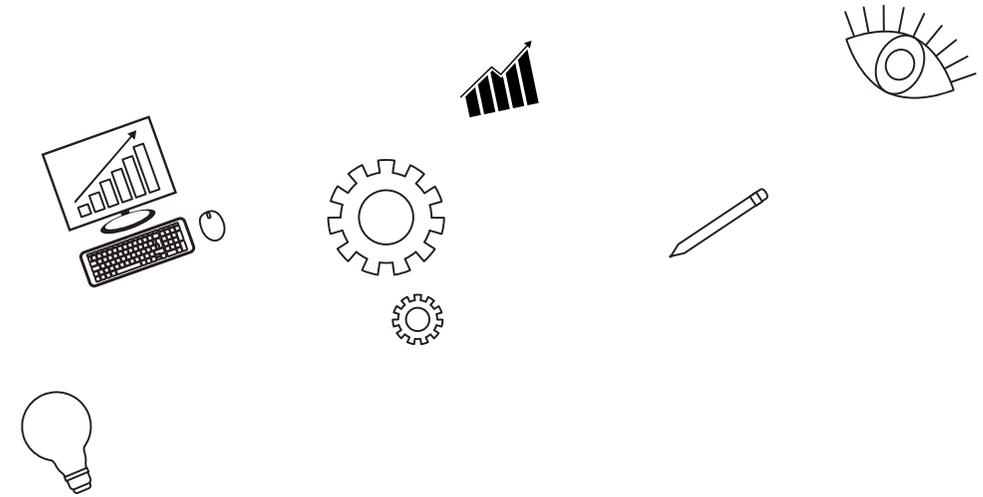
6) 부천시 현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기본통계(<http://stat.bucheon.go.kr>) 및 정홍준(2016) 『부천시 청년정책 및 제도발굴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2장 부천시 현황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6-28쪽) 참조.

일자리가 질적으로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대 이하의 경우 62.1%가 부천 이외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역시 57.1%에 해당하는 비율이 부천 이외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취업자의 구직활동 역시 희망 근무형태는 69.6%가 정규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희망 근무지 역시 81.8%가 거주지인 부천시를 선호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천시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사에서 드러난 구직 여건에 대한 체감은 65.8%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직 전망 역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20대와 30대에서 60%이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우선 추진 부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71%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회적 일자리 확대(66.7%),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5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관련한 정책 역시 청년고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책의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가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시정부에 제기할 수 있다.

2016 경제지표에 따르면, 부천시 소재 제조업체는 10,533개가 있으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많은 특징을 갖는다. 제조업 전체의 60% 정도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이며, 50인 이상 규모 업체는 전체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현황의 경우 제조업체의 전체 고용인원은 약 7만 5천명이며, 부천시 거주자는 4만 6천명이다.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임시직 32.3%, 시간제 근로자 20.8%이며, 비제조업은 임시직 44.5%, 시간제 근로자가 36.2%이다. 특이할 점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 비율이 8.9%에 불과하며,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4,560명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약 57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삶의 질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2곳)과 대학교(2곳)의 2016년도 취업률은 55.89%, 40.80%로 파악되었다.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제5장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 제5장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연구목적에 맞게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7년 7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부천시 소재의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 기관, 노동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 직업전문학교, 간호학원, 대학 산학협력단, 평생학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실제로 설문조사가 진행된 방법은 두 가지이며, 첫째,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설문조사 담당자가 협조된 기관을 방문하여 이용자 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1:1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담당자가 1:1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의 기관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할 때는 각 기관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각 기관 이용자 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편이나 전화조사 방법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대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점, 조사도구 문항 수가 많아 무응답이나 무성의한 응답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2. 조사도구와 자료분석방법

조사도구는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 청년 미취업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지표, 이전 취업경험, 원하는 취업조건, 취업을 위한 서비스 욕구 등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지표에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공과 최종학력, 진로관련 상황과 기대, 희망하는 일자리, 심리사회적 특성, 일상생활 현황,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구성은 <표 5-1>과 같으며, 설문지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1〉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일시	지표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특성 : 성별, 출생년, 출생월, 세대주(가구주) 여부, 장애여부(장애유형과 등급) - 가구특성 : 전체 가족 수, 가족 월평균 수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 주거특성 : 주거형태, 주거소유형태, 월 주거비용, 부천시 총 거주기간 - 학력특성 : 최종학력, 출신 고교유형, 전공계열
진로관련 경험과 기대	- 지난 2주간의 주된 생활, 최종 학교 졸업 후 취업 경험,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개수 -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 경험 : 일한 기간, 종사상 지위, 근무형태, 업종, 업무(직무), 월평균급여(상여금 포함), 퇴직 이유 - 미취업 관련 특성 : 미취업기간, 미취업기간 동안 주된 활동, 미취업의 주된 이유 - 취업 관련 특성 : 고용센터 방문 경험, 직업훈련기관 경험(목적, 도움정도, 도움 되지 않은 이유), 구직활동 계획, 취업의 가장 큰 어려움, 일자리정보 습득 경로, 취업스트레스 증상, 노동에 대한 인식, 미취업자 취업정책, 미취업자를 위한 부천시의 우선과제, 청년정책
희망하는 일자리	- 산업유형, 사업체 유형, 근로형태, 급여,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 노동자권리에 대한 인식정도
심리사회적 특성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 자존감 정도, 미래 삶에 대한 기대
일상생활	- 외출정도, 규칙적 생활정도, 대인관계정도, 미래에 대한 준비정도, 생활비 마련 방법, 한 달 생활비, 부채 현황(원인, 총액, 신용불량자 여부,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인식), 생활 중 힘든 점
결혼과 출산	- 혼인상태, 결혼에 대한 인식, 출산에 대한 인식

최종적으로 회수된 454부의 설문지를 검토한 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응답자,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응답자, 현재 취업 중인 청년이 응답하여 본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설문지, 무성의한 응답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등 91case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는 363case이다.

자료분석방법은 첫째, 부천시 청년의 생활실태와 취업 경험, 희망하는 일자리 등 조사 도구에 포함된 전반적인 변수에 대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집단별 평균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경험과 희망하는 일자리,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검정,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결과만 제시하였다.

### 3. 분석결과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138명(38.1%), 여성 224명(61.9%)이며, 연령은 19-24세 115명(31.7%), 25-29세 135명(37.2%), 30-34세 59명(16.3%), 35-39세 54명(14.9%)으로, 평균 연령은 27.63세(SD=5.28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은 본 실태조사 참여자의 생활실태와 취업경험, 취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함에 있어 독립변수로 활용할 것이며, 연령은 필요에 따라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등 세 범주로 변환하여 활용할 것이다.

응답자 중 비장애인은 353명(99.4%)이며, 장애인은 2명(0.6%)으로, 2명 모두 지적장애인이며, 장애정도는 2급 1명, 3급 1명으로 나타났다.

〈표 5-2〉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138	38.1	
	여성	224	61.9	
	계	362	100.0	
연령	19-24세	115	31.7	
	25-29세	135	37.2	
	30-34세	59	16.3	27.63세
	35-39세	54	14.9	(5.279세)
	계	363	100.0	
장애여부	장애인	2	0.6	
	비장애인	353	99.4	
	계	355	100.0	

〈표 5-3〉은 〈표 5-2〉에서 살펴본 실태조사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25-29세가 64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와 30-39세가 각각 37명(26.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19-24세 77명(34.4%), 30-39세 76명(33.9%), 25-29세 71명(31.7%)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7.872, df = 2,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성별에 따른 연령대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9-24세	37 26.8%	77 34.4%	114 31.5%
25-29세	64 46.4%	71 31.7%	135 37.3%
30-39세	37 26.8%	76 33.9%	113 31.2%
전체	138 100.0%	224 100.0%	362 100.0%

chi-square = 7.872, df = 2, p < .05

응답자의 가구 특성은 아래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응답자가 세대주(가구주)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대주(가구주)인 경우는 63명(18.7%), 세대주(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274명(81.3%)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동거가족 수는 4명 158명(44.0%), 3명 94명(26.2%), 2명 36명(10.0%), 5명 이상 40명(11.1%)이며, 평균 동거가족 수는 3.41명(SD=1.14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가 316명(95.8%),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가 7명(2.1%),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가 1명(0.3%),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가 3명(0.9%), 교육급여 수급가구가 3명(0.9%)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수입은 200만원 이하 51명(21.3%), 201-300만원 58명(24.3%), 301-400만원 39명(13.6%), 401-500만원 45명(18.8%), 501만원 이상 46명(19.2%)이며, 평균 406.67만원(SD=243.7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4〉 응답자 가구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세대주(가구주) 여부	세대주	63	18.7	
	세대주 아님	274	81.3	
	계	337	100.0	
동거가족 수 (응답자 포함)	1명	31	8.6	3.41명 (1.140명)
	2명	36	10.0	
	3명	94	26.2	
	4명	158	44.0	
	5명 이상	40	11.1	
	계	359	100.0	
기초생활제도 수급여부	수급대상 아님	316	95.8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7	2.1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1	0.9	
	교육/교육급여 수급가구	3	0.9	
	교육급여 수급가구	3	0.9	
	계	330	100.0	
가족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	51	21.3	406.67만원 (243.725만원)
	201-300만원	58	24.3	
	301-400만원	39	16.3	
	401-500만원	45	18.8	
	501만원 이상	46	19.2	
	계	239	100.0	
가구원 1인당 월평균수입	75만원 이하	61	25.5	131.25만원 (139.592만원)
	76-100만원	59	24.7	
	101-125만원	34	14.2	
	126-150만원	31	13.0	
	151-200만원	33	13.8	
	201만원 이상	21	8.8	
	계	239	100.0	

가족 월평균수입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가구원 1인당 평균 월수입을 분석한 결과, 75만원 이하 61명(25.5%), 76-100만원 59명(24.7%), 101-25만원 34명(14.2%), 126-150만원 31명(13.0%), 151-200만원 33명(13.8%), 201만원 이상 21명(8.8%)이며, 평균 131.25만원(SD=139.59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거특성을 살펴보면(〈표 5-5〉 참조), 먼저 주거의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162명(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가구/빌라 152명(42.3%), 단독주택 30명(8.4%), 상가주택 14명(3.9%), 기타 1명(0.3%)으로 나타났다.

〈표 5-5〉 응답자 주거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주거형태	단독	30	8.4	
	다가구/빌라	152	42.3	
	아파트	162	45.1	
	상가주택	14	3.9	
	기타	1	0.3	
	계	359	100.0	
주거소유	자가	197	57.4	
	전세/월세	140	40.8	
	고시원	1	0.3	
	기타	5	1.5	
	계	343	100.0	
월 주거비용	20만원 이하	12	14.8	
	21-40만원	27	33.3	
	41-60만원	13	16.0	
	61-80만원	9	11.1	
	81-100만원	9	11.1	
	101만원 이상	11	13.6	
	계	81	100.0	
부천시 거주기간	5년 이하	60	21.7	16.22년 (9.757년)
	6-10년	39	14.1	
	11-15년	30	10.9	
	16-20년	44	15.9	
	21-25년	50	18.1	
	26년 이상	53	19.2	
	계	276	100.0	

그리고 주거소유형태는 자가 197명(57.4%), 전세/월세 140명(40.8%), 고시원 1명(0.3%), 기타 5명(1.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부천시 거주기간은 5년 이하 60명(21.7%), 6-10년 39명(14.1%), 11-15년 30명(10.9%), 16-20년 44명(15.9%), 21-25년 50명(18.1%), 26년 이상 53명(19.2%)이며, 평균 16.22년(SD=9.76년)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표 5-6〉 참조), 고등학교 중퇴 이하 6명(1.7%), 고등학교 졸업 108명(30.2%), 전문대학 졸업 120명(33.5%),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124명(34.6%)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본 실태조사 참여자의 생활실태와 취업경험, 취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함에 있어 독립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등 세 범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표 5-6〉 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고등학교 중퇴 이하	6	1.7
고등학교 졸업	108	30.2
전문대학 졸업	120	33.5
대학교 졸업 이상	124	34.6
계	358	100.0

〈표 5-7〉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학력 분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남성(137명)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3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 45명(32.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9명(25.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220명)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85명(38.6%), 전문대학 졸업 74명(33.6%), 고등학교 졸업 이하 61명(27.4%)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력 분포는 근소한 차이로 95% 신뢰수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chi-square = 5.705, df = 2, p = .058).

〈표 5-7〉 성별에 따른 학력

구분	남성	여성	전체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38.7%	61 27.7%	114 31.9%
전문대학 졸업	45 32.8%	74 33.6%	119 33.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9 28.5%	85 38.6%	124 34.7%
전체	137 100.0%	220 100.0%	357 100.0%

chi-square = 5.705, df = 2, p = .058

실태조사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5-8〉 참조), 19-24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명(47.8%), 전문대학 졸업 45명(39.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4명(12.4%)이며, 25-29세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59명(44.7%), 전문대학 졸업 45명(34.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명(21.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34세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9명(49.2%), 전문대학 졸업 18명(30.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명(20.3%)이며, 35-39세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2명(40.7%),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명(37.0%), 전문대학 졸업 12명(22.2%)으로 나타났다.

〈표 5-8〉 연령대에 따른 학력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체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 47.8%	28 21.2%	12 20.3%	20 37.0%	114 31.8%
전문대학 졸업	45 39.8%	45 34.1%	18 30.5%	12 22.2%	120 33.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4 12.4%	59 44.7%	29 49.2%	22 40.7%	124 34.6%
전체	113 100.0%	132 100.0%	59 100.0%	54 100.0%	358 100.0%

chi-square = 44.358, df = 6, p < .001

이와 같은 연령대에 따른 학력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44.358, df = 6,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30-39세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chi-square test를 실시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square = 40.736, df = 4,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천시 미취업 청년 중 20대 초반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비율이 높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으며, 30대 후반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108명의 대상으로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질문한 결과(〈표 5-9〉 참조), 일반계/인문계(종합고 인문계 포함)가 55명(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업계 21명(19.6%), 공업계 15명(14.0%), 기타(대안학교, 방송통신고, 해외 고교 등) 9명(8.4%), 특목고(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3명(2.8%), 전문계(농업계, 해양계 등)와 예체능계 각각 2명(1.9%)으로 나타났다.

〈표 5-9〉 고등학교 유형, 전공계열

구분	빈도	백분율	
고등학교 유형	일반계/인문계(종합고 인문계 포함)	55	51.4
	공업계	15	14.0
	특목고(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3	2.8
	상업계	21	19.6
	전문계(농업계, 해양계 등)	2	1.9
	예체능계	2	1.9
	기타(대안학교, 방송통신고, 해외 고교 등)	9	8.4
	계	107	100.0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열	54	23.0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48	20.4
	자연계열	19	8.1
	공학계열	56	23.8
	교육계열	11	4.7
	예체능계열	46	19.6
	기타	1	0.4
	계	235	100.0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 244명을 대상으로 전공계열을 질문한 결과(〈표 5-9〉 참조), 공학계열이 56명(2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문계열 54명(23.0%), 사회계열(경상계열 포함) 48명(20.4%), 예체능계열 46명(19.6%), 자연계열 19명(8.1%), 교육계열 11명(4.7%), 기타 1명(0.4%) 순으로 조사되었다.

## 나) 취업경험

〈표 5-10〉은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취업경험을 분석한 결과이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7명(82.7%), 그렇지 않은 경우가 62명(17.3%)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연령대에 따른 취업경험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체
취업경험 있음	80 70.8%	109 82.0%	56 94.9%	52 96.3%	297 82.7%
취업경험 없음	33 29.2%	24 18.0%	3 5.1%	2 3.7%	62 17.3%
전체	113 100.0%	133 100.0%	59 100.0%	54 100.0%	359 100.0%

chi-square = 24.406, df = 3, p < .001

연령대에 따라서는 19-24세의 경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80명(70.8%), 그렇지 않은 경우가 33명(29.2%)이며, 25-29세는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109명(82.0%), 그렇지 않은 경우가 24명(1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34세는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56명(94.9%), 그렇지 않은 경우가 3명(5.1%)이며, 35-39세는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52명(96.3%), 그렇지 않은 경우가 2명(3.7%)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취업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24.406, df = 3,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30-39세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chi-square test를 실시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24.369, df = 2,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대가 20대에 비해 취업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 경험은 성별,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결과 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5-11〉은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경험한 일자리 수는 평균 3.12개(SD=2.06개)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 경험은 성별,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결과 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5-11〉은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경험한 일자리 수는 평균 3.12개(SD=2.06개)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97명이 경험한 일자리 수는 평균 3.59개(SD=2.23개)이며, 전문대학 졸업자 95명의 평균은 3.19개(SD=2.26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102명의 평균은 2.62개(SD=1.54개)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현재까지 경험한 총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 5.767, df1 = 2, df2 = 291,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정(Tukey) 결과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간의 평균 차이(0.97개)가 통계적으로 유의(p < .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에 비해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학력자의 이직률이 고학력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학력에 따른 경험한 일자리 수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고등학교 졸업 이하	97	1.00	12.00	3.5876	2.23025
전문대학 졸업	95	1.00	10.00	3.1895	2.2564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02	1.00	10.00	2.6176	1.54179
전체	294	1.00	12.00	3.1224	2.06018

F = 5.767, df1 = 2, df2 = 291, p < .01

〈표 5-12〉는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몇 개의 일자리를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19-24세 80명이 경험한 총 일자리 수 평균은 3.59개(SD=1.89개)며, 25-29세 108명의 평균은 2.75개(SD=1.80개), 30-34세 56명의 평균은 3.52개(SD=1.95개), 34-39세 52명의 평균은 4.25개(SD=2.42개)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 = 9.593, df1 = 3, df2 = 292,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정(Tukey)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범주는 19-24세와 30-34세 간 경험한 일자리 수 차이(0.92개,  $p < .05$ ), 19-24세와 35-39세 간 경험한 일자리 수 차이(1.65개,  $p < .001$ ), 25-29세와 35-39세 간 경험한 일자리 수 차이(1.5개,  $p < .001$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이 경험한 일자리 수를 통해 고연령 집단이 저연령 집단보다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2〉 연령대에 따른 경험한 일자리 수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9-24세	80	1.00	12.00	2.6000	1.88666
25-29세	108	1.00	10.00	2.7500	1.79888
30-34세	56	1.00	10.00	3.5179	1.94461
35-39세	52	1.00	10.00	4.2500	2.41624
합계	296	1.00	12.00	3.1182	2.05423

$F = 9.593, df1 = 3, df2 = 291, p < .001$

〈표 5-13〉은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일한 총 기간을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유효응답자 208명의 평균 일한 기간은 4.26년( $SD=3.81$ 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55명이 일한 기간은 평균 1.98년( $SD=1.91$ 년)이며, 25-29세 78명의 평균은 2.97년( $SD=2.10$ 년), 30-34세 45명의 평균은 6.34년( $SD=3.64$ 년), 34-39세 30명의 평균은 8.68년( $SD=4.89$ 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현재까지 일한 총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 = 44.754, df1 = 3, df2 = 204,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정(Tukey)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범주는 19-24세와 30-34세 간 일한 기간 차이(4.36년,  $p < .001$ ),

19-24세와 35-39세 간 일한 기간 차이(6.71년,  $p < .001$ ), 25-29세와 30-34세 간 일한 기간 차이(3.37년,  $p < .001$ ), 25-29세와 35-39세 간 일한 기간 차이(5.71년,  $p < .001$ ), 30-34세와 35-39세 간 일한 기간 차이(2.35년,  $p < .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연령대에 따른 총 일한 기간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9-24세	55	.08	10.50	1.9773	1.90991
25-29세	78	.25	10.00	2.9690	2.09648
30-34세	45	.42	15.00	6.3370	3.64161
35-39세	30	1.00	20.00	8.6833	4.88769
합계	208	.08	20.00	4.2596	3.81290

$F = 44.954, df1 = 3, df2 = 204, p < .001$

〈표 5-14〉는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용직이 170명(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시직 81명(28.8%), 일용직 10명(3.6%), 고용주 8명(2.8%), 자영업자 7명(2.5%), 기타 5명(1.8%)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외주용역 1명, 프리랜서 1명, 파견직 1명, 도급 1명 등이 있었다.

〈표 5-14〉 가장 길게 일한 직장에서 종사상 지위

구분	빈도	백분율
상용직	170	60.5
임시직	81	28.8
일용직	10	3.6
고용주	8	2.8
자영업자	7	2.5
기타	5	1.8
계	281	100.0

- 1)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정규직원 또는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 후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 2) 임시직 : 고용계약 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3) 일용직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일급(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
- 4) 고용주 : 1명 이상 급여를 주는 직원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5) 자영업자 : 급여를 주는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

〈표 5-14〉의 종사상 지위를 응답자의 성별, 학력, 연령대에 따라 분석해보기 위해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기타 등 세 범주로 구분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과 학력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따라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5〉와 같다.

19-24세의 경우, 상용직 36명(48.6%), 임시직/일용직 34명(45.9%), 기타 4명(5.4%)이며, 25-29세의 경우에는 상용직 56명(53.3%), 임시직/일용직 40명(38.1%), 기타 9명(8.6%), 30-39세는 상용직 78명(76.5%), 임시직/일용직 17명(16.7%), 기타 7명(6.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대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20.577, df = 4,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 중 과거 가장 길게 일한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20대의 경우 임시직/일용직 경험 비율이 높고, 30대의 경우 상용직 경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실업과 취업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5〉 연령대에 따른 종사상 지위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상용직	36 48.6%	56 53.3%	78 76.5%	170 60.5%
임시직/일용직	34 45.9%	40 38.1%	17 16.7%	91 32.4%
기타	4 5.4%	9 8.6%	7 6.9%	20 7.1%
전체	74 100.0%	105 100.0%	102 100.0%	281 100.0%

chi-square = 20.577, df = 4, p < .001

〈표 5-16〉은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직장)에서의 근무형태를 연령대에 따라 분석할 결과이다. 먼저 유효응답자 280명 중 전일제가 215명(76.8%), 시간제가 65명(23.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의 경우 전일제 47명(61.0%), 시간제 30명(39.0%), 이며, 25-29세는 전일제 78명(76.5%), 시간제 24명(23.5%), 30-39세는 전일제 90명(89.1%), 시간제 11명(10.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근무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19.321, df = 2,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 중 과거 가장 길게 일한 직장에서의 근무형태는 20대의 경우 시간제로 근무한 비율이 높고, 30대의 경우 전일제로 근무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14〉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부천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6〉 연령대에 따른 근무형태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전일제	47 61.0%	78 76.5%	90 89.1%	215 76.8%
시간제	30 39.0%	24 23.5%	11 10.9%	65 23.2%
전체	77 100.0%	102 100.0%	101 100.0%	280 100.0%

- 1) chi-square = 19.321, df = 3, p < .001
- 2) 전일제 :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일반 직장의 직원
- 3) 시간제 : 하루 8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표 5-17〉은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직장)의 업종과 업무(직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응답자들이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직장)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66명(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61명(21.4%), 숙박 및 음식점업 37명(13.0%), 출판/IT/정보서비스업 36명(12.6%), 사회복지서비스업 32명(11.2%), 도매 및 소매업 31명(10.9%),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 각각 8명(2.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각각 2명(0.7%)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

로는 서비스업 12명, 교육 11명, 문화예술 8명, 보건의료 5명 등이 있었다.

〈표 5-17〉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 업종, 업무(직무)

구분	빈도	백분율	
업종	제조업	66	23.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0.7
	건설업	8	2.8
	도매 및 소매업	31	10.9
	운수업	2	0.7
	숙박 및 음식점업	37	13.0
	출판, IT, 정보서비스업	36	12.6
	금융 및 보험업	8	2.8
	부동산 및 임대업	2	0.7
	사회복지서비스업	32	11.2
	기타	61	21.4
	계	285	100.0
	직무	관리자	1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5	19.4
사무종사자		74	26.1
서비스종사자		63	22.2
판매종사자		26	9.2
기능직종사자		9	3.2
기계/장치 조작종사자		9	3.2
조립종사자		8	2.8
단순노무종사자		20	7.0
기타		4	1.4
계		284	100.0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에서의 업무(직무)는 사무종사자가 74명(2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 63명(2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5명(19.4%), 판매종사자 26명(9.2%), 단순노무종사자 20명(7.0%), 관리자 16명(5.6%), 기능직종사자와 기계/장치조작종사자가 각각 9명(3.2%), 조립종사자 8명(2.8%), 기타 4명(1.4%)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직종사자의 비율은 30%이하이며, 부천시 청년 미취업자의 70%이상 이전 직장에서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8〉은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상여금 포함)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18〉 연령대에 따른 월평균 급여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9-24세	76	18.00	600.00	135.9474	73.25333
25-29세	100	60.00	500.00	161.6300	58.14240
30-34세	51	80.00	300.00	176.0784	55.26367
35-39세	50	80.00	350.00	196.1000	60.67049
합계	277	18.00	600.00	163.4657	65.64747

F = 10.140, df1 = 3, df2 = 272, p < .001

먼저 유효응답자 277명의 월평균 급여의 평균은 163.47만원(SD=65.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76명의 월평균 급여 평균은 135.94만원(SD=73.25만원)이며, 25-29세 100명의 월평균 급여 평균은 161.63만원(SD=58.1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34세(51명) 월평균 급여 평균은 176.08만원(SD=55.26만원), 34-39세(50명) 월평균 급여의 평균은 196.10만원(SD=60.67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 10.140, df1 = 3, df2 = 272,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정(Tukey)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범주는 19-24세와 25-29세 간 월평균 급여의 차이(25.68만원, p < .05), 19-24세와 30-34세 간 월평균 급여 차이(40.13만원, p < .01), 19-24세와 35-39세 간 월평균 급여 차이(60.15만원, p < .001), 25-29세와 35-39세 간 월평균 급여 차이(34.47만원, p < .0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월평균 급여의 차이는 〈표 5-13〉, 〈표 5-14〉, 〈표 5-15〉, 〈표 5-16〉

에서 본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현재까지 일한 기간이 길어 호봉이 높고, 상용직과 전일제로 일한 비율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9〉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공부하기 위해서	52	18.6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4	1.4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23	8.2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5	1.8
동료(상관)와의 불화 때문에	8	2.9
보수, 승진 등의 불만 때문에	9	3.2
직장(직무)가 전망이 없어서	33	11.8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36	12.9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	1.1
직장 폐업으로 인해서	13	4.6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34	12.1
건강이 좋지 않아서	11	3.9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25	8.9
직장의 일방적인 해고 때문에	10	3.6
기타	14	5.0
계	280	100.0

〈표 5-19〉는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직장)를 그만 둔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유효응답자 280명 중 공부하기 위해서 일자리(직장)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52명(1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36명(12.9%),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34명(12.1%), 직장(직무)이 전망이 없어서 33명(11.8%),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25명(8.9%),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23명(8.2%), 기타 14명(5.0%), 직장 폐업으로 인해서 13명(4.6%), 직장의 일방적인 해고 때문에 10명(3.6%)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응답으로는 군 입대를 위해서 2명, 집안 사정 2명, 일자리 감소 1명, 퇴사 권고 1명, 쉬고 싶어서 1명, 이사 1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직장 폐업으로 인해서, 직장의 일방적인 해고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 둔 비율이 전체 유효응답자의 20.3%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부천시 청년들이 지금까지 가장 길게 일한 일자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일자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다) 구직활동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기간(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최종 학교 졸업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20〉과 같다. 유효응답자 337명 중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37명(40.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개월 - 1년 미만 82명(24.3%), 1년 - 2년 미만 59명(17.5%), 3년 이상 39명(11.6%), 2년 - 3년 미만 20명(5.9%)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취업자가 유효응답자의 35.0%에 이르러 장기 미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0〉 성별에 따른 미취업기간

구분	남성	여성	전체
6개월 미만	61 46.9%	76 36.7%	137 40.7%
6개월 - 1년 미만	40 30.8%	42 20.3%	82 24.3%
1년 - 2년 미만	14 10.8%	45 21.7%	59 17.5%
2년 - 3년 미만	7 5.4%	13 6.3%	20 5.9%
3년 이상	8 6.2%	31 15.0%	39 11.6%
전체	130 100.0%	207 100.0%	337 100.0%

chi-square = 16.617, df = 4, p < .01

남성의 미취업기간은 6개월 미만 61명(46.9%), 6개월 - 1년 미만 40명(30.8%), 1년 - 2년 미만 14명(10.8%), 3년 이상 8명(6.2%), 2년 - 3년 미만 7명(5.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미취업기간은 6개월 미만 76명(36.7%), 1년 - 2년 45명(21.7%), 6개월 - 1년 미만 42명(20.3%), 3년 이상 31명(15.0%), 2년 - 3년 미만 13명(6.3%)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근무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16.617, df = 4,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미취업기간보다 여성의 미취업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은 남성이 22.3%이며, 여성이 43.0%로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뒤에서 살펴볼 것 될 혼인상태(여성의 기혼비율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자녀유무(여성인 자녀가 있는 비율이 22.4%p 높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장기 미취업자 비율이 남성의 장기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미취업기간의 장기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1〉은 연령대에 따른 미취업기간을 분석할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21〉 연령대에 따른 미취업기간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6개월 미만	45 42.9%	52 42.6%	41 36.9%	138 40.8%
6개월 - 1년 미만	33 31.4%	33 27.0%	16 14.4%	82 24.3%
1년 - 2년 미만	20 19.0%	23 18.9%	16 14.4%	59 17.5%
2년 - 3년 미만	4 3.8%	6 4.9%	10 9.0%	20 5.9%
3년 이상	3 2.9%	8 6.6%	28 25.2%	39 11.5%
전체	105 100.0%	122 100.0%	111 100.0%	338 100.0%

chi-square = 38.831, df = 8, p < .001

19-24세의 경우, 6개월 미만 45명(42.9%), 6개월 - 1년 미만 33명(31.4%), 1년 - 2년 미만 20명(19.0%), 2년 - 3년 미만 4명(3.8%), 3년 이상 3명(2.9%)이며, 25-29세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52명(42.6%), 6개월 - 1년 미만 33명(27.0%), 1년 - 2년 미만 23명(18.9%), 2년 - 3년 미만 6명(4.9%), 3년 이상 8명(6.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39세는 6개월 미만 41명(36.9%), 3년 이상 28명(25.2%), 6개월 - 1년 미만 16명(14.4%), 1년 - 2년 미만 16명(14.4%), 2년 - 3년 미만 10명(9.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대에 따른 미취업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38.831, df = 8,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미취업기간은 30대가 20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미취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30대가 20대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0대의 3년 이상 최장기 미취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2〉는 미취업기간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미취업기간 동안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이 95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57명(17.2%),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54명(16.3%),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냈다는 응답이 53명(16.0%),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응답이 42명(12.7%), 출산·육아·가사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27명(8.1%), 기타 4명(1.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응답으로는 창업 준비 1명, 외국생활 1명 등이 있었다. 유효 응답자의 62.1%가 미취업 기간 중 주로 직업교육(훈련), 취업관련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싶지만 채용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81명(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쉬고 싶어서 57명(17.2%),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2명(12.7%), 원하는 급여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9명(11.7%), 집안 일(육아, 가사, 돌봄 등) 때문에 29명(8.7%),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6명(7.8%), 원하는 근무시간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1명(6.3%), 기타 19명(5.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명(3.9%), 가족의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5명(1.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공무원, 자격증 등 시험 준비 3명,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3명, 자기개발 2명, 창업 준비 1명 등이 있었다.

〈표 5-22〉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 일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미취업기간 주요활동	직업교육(훈련)	95	28.6
	취업관련 시험 준비	54	16.3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	53	16.0
	구직활동	57	17.2
	출산, 육아, 가사 활동	27	8.1
	특별히 하는 일 없음	42	12.7
	기타	4	1.2
	계	332	100.0
일하지 않는 이유	전공과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6	7.8
	내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2	12.7
	원하는 급여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9	11.7
	원하는 근무시간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1	6.3
	가족의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5	1.5
	채용이 되지 않아서	81	24.4
	쉬고 싶어서	57	17.2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	3.9
	집안일 때문에	29	8.7
	기타	19	5.7
	계	332	100.0

〈표 5-23〉부터 〈표 5-25〉까지는 미취업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이 성별, 학력, 미취업기간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미취업기간 동안의 활동에 ‘기타’로 응답한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표 5-23〉 참조), 남성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우가 39명(30.7%), 구직활동 23명(18.1%),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냄 22명(17.3%), 취업관련 시험 준비 21명(16.5%),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냄 21명(16.5%), 출산/육아/가사 활동을 함 1명(0.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음 56명(28.0%), 구직활동 34명(17.0%), 취업관련 시험 준비 33명(16.5%),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냄 31명(15.5%), 출산/육아/가사 활동을 함 26명(13.0%),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냄 20명(10.0%)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17.087, df = 5,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 중 남성과 여성에게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출산/육아/가사 활동을 한 비율은 여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시간을 보낸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6.5%p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취업관련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 취업관련 활동을 한 비율은 남성이 65.3%, 여성이 61.5%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성별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직업교육(훈련)	39 30.7%	56 28.0%	95 29.1%
취업관련 시험 준비	21 16.5%	33 16.5%	54 16.5%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	22 17.3%	31 15.5%	53 16.2%
구직활동	23 18.1%	34 17.0%	57 17.4%
출산/육아/가사 활동	1 0.8%	26 13.0%	27 8.3%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1 16.5%	20 10.0%	41 12.5%
전체	127 100.0%	200 100.0%	327 100.0%

chi-square = 17.087, df = 5, p < .01

학력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을 분석한 결과(〈표 5-24〉 참조), 고졸 이하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받음 33명(32.0%),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냄 23명(22.3%),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냄 19명(18.4%), 구직활동 11명(10.7%), 취업관련 시험 준비 10명(9.7%), 출산/육아/가사활동 7명(6.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 받음 31명(27.4%), 구직활동 21명(18.6%),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 보냄 20명(17.7%), 취업과 관련된 시험 준비 17명(15.0%),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냄 16명(14.2%), 출산/육아/가사 활동 8명(7.1%)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음 30명(27.3%),

취업관련 시험 준비 27명(24.5%), 구직활동 24명(21.8%), 출산/육아/가사 활동 12명(10.9%),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냄 10명(9.1%),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냄 7명(6.4%)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24.478, df = 10,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 중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과 구직활동을 한 비율은 저학력에 비해 고학력이 높다는 점과 여행이나 독서 등 여가시간으로 보낸 비율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 비율은 고학력에 비해 저학력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취업관련 시험 준비, 구직 활동 등 취업관련 활동을 한 비율은 고졸 이하 52.6%, 전문대학 졸업 학력자 61.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73.6%로 고학력자들이 미취업 기간 중에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4> 학력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전체
직업교육(훈련)	33 32.0%	31 27.4%	30 27.3%	94 28.8%
취업관련 시험 준비	10 9.7%	17 15.0%	27 24.5%	54 16.6%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	23 22.3%	20 17.7%	10 9.1%	53 16.3%
구직활동	11 10.7%	21 18.6%	24 21.8%	56 17.2%
출산/육아/가사 활동	7 6.8%	8 7.1%	12 10.9%	27 8.3%
특별히 하는 일 없음	19 18.4%	16 14.2%	7 6.4%	42 12.9%
전 체	103 100.0%	113 100.0%	110 100.0%	326 100.0%

chi-square = 38.831, df = 8, p < .001

<표 5-25>는 미취업기간에 따라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분석에서 미취업기간은 장기 미취업기간을 구분하는 “1년”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미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미취업기간 중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4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직활동 44명(21.6%), 여행이나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냄 36명(17.6%), 취업관련 시험 준비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 보냄이 각각 29명(14.2%), 출산/육아/가사 활동 2명(1.0%)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응답자들은 취업관련 시험 준비 25명(22.7%), 직업교육(훈련)을 받음과 출산/육아/가사 활동을 함이 각각 23명(20.9%), 여행이나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냄 15명(13.6%), 구직활동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 보냄이 각각 12명(10.9%)으로 나타났다.

<표 5-25> 미취업기간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직업교육(훈련)	64 31.4%	23 20.9%	87 27.7%
취업관련 시험 준비	29 14.2%	25 22.7%	54 17.2%
여행, 독서 등 여가시간	36 17.6%	15 13.6%	51 16.2%
구직활동	44 21.6%	12 10.9%	56 17.8%
출산/육아/가사 활동	2 1.0%	23 20.9%	25 8.0%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9 14.2%	12 10.9%	41 13.1%
전 체	204 100.0%	110 100.0%	314 100.0%

chi-square = 47.342, df = 5, p < .001

미취업기간에 따른 미취업기간 중 주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47.342, df = 5,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 중 미취업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일 받은 비율, 구직활동을 한 비율, 여행이나 독서 등 여가시간을 보낸 비율,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 비율은 미취업기간 1년 이상 경험자 보다 미취업기간 1년 미만 응답자의 비율이 높으며, 취업관련 시험 준비 비율, 출산/육아/가사 활동을 한 비율은 미취업기간 1년 미만 응답자보다 1년 이상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취업관련

시험 준비, 구직 활동 등 취업관련 활동을 한 비율은 미취업기간 1년 미만인 응답자가 67.2%로 1년 이상 미취업자 5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은 직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처 안내받기, 채용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지방기관)에 인지 여부와 방문 경험이 있는지를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고용센터의 인지여부와 방문 경험을 살펴보면, 고용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8명(58.6%)이며,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방문한 경험 없음 119명(33.5%),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경우가 28명(7.9%)으로 나타나 고용센터 인지 비율은 상당히 높지만, 방문경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6〉 연령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지/방문 경험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고용센터를 모름	15 13.4%	13 9.9%	0 0.0%	28 7.9%
고용센터를 알지만 방문한 적 없음	31 27.7%	50 38.2%	38 33.9%	119 33.5%
고용센터 방문경험 있음	66 58.9%	68 51.9%	74 66.1%	208 58.6%
전체	112 100.0%	131 100.0%	112 100.0%	355 100.0%

chi-square = 17.887, df = 4, p < .01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4세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6명(58.9%),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방문한 적 없음 31명(27.7%),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15명(13.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5-29세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명(51.9%),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방문한 적 없음 50명(38.2%),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13명(9.9%)이며, 30-39세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4명(66.1%),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방문한 적 없음 38명(33.9%),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지 여부 및 방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17.887, df = 4,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센터를 알고 방문한 경험은 30대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은 2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센터를 홍보함에 있어서는 20대 청년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홍보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5-27〉은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사회진출 이후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전문 직업훈련기관이란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업무지식과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출석을 관리하며, 수료증과 자격증이 주어지는 과정(간호조무사, 조경기사, 물류관리사, 심리상담사 등)을 말하며, 취미나 문화 활동 등은 제외된다.

먼저 유효응답자 359명 중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1명(39.3%)이며,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없는 경우는 218명(60.7%)으로 나타났다.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없는 비율이 60.7%로 나타난 것은 본 실태조사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표 5-27〉 연령대에 따른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다닌 경험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다닌 경험 있음	38 33.3%	44 33.1%	59 52.7%	141 39.3%
다닌 경험 없음	76 66.7%	89 66.9%	53 47.3%	218 60.7%
전체	114 100.0%	133 100.0%	112 100.0%	359 100.0%

chi-square = 12.262, df = 2, p < .01

연령대별로는 19-24세의 경우 다닌 경험 있음 38명(33.3%), 다닌 경험 없음 76명(66.7%)이며, 25-29세의 경우 다닌 경험 있음 44명(33.1%), 다닌 경험 없음 89명(66.9%), 30-39세의 경우 다닌 경험 있음 59명(52.7%), 다닌 경험 없음 53명(47.3%)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12.262, df = 2,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30대가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의 경우에도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60.7%에 달한다는 점을 고

려하면 부천시 청년들의 취업 및 고용 상담 과정에서 전문 직업훈련기관과 각 기관별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8〉은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사회진출 이후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이유와 도움 정도를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28〉 전문 직업훈련학교 경험

구분		빈도	백분율
직업훈련 받은 목적	창업을 위해서	3	2.2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해서	87	64.4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서	15	11.1
	경력개발을 위해서	7	5.2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21	15.6
	그냥 쉬기보다 뭐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	1.5
	계	135	100.0
직업훈련 도움 정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41	29.5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72	51.8
	보통이다	22	15.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2.9
	계	139	100.0

전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주된 목적은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해서가 87명(6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21명(15.6%),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서 15명(11.1%), 경력개발을 위해서 7명(5.2%), 창업을 위해서 3명(2.2%), 그냥 쉬기보다 뭐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2명(1.5%)으로 나타났다.

전문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은 직업훈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72명(51.8%), 매우 도움이 되었다 41명(29.5%), 보통이다 22명(15.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명(2.9%)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응답자 중 80.3%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표 5-2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0.7%에 이른다는 점이다. 즉 직업훈련기관을 다닌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낮지만,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 직업훈련기관 참여 특성을 토대로 전문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4명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원하는 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명, 직업훈련에서 얻은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적어서 1명,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참여한 것이 아니라서 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5-29〉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293명(82.5%)이며, 구직활동 계획이 없는 경우는 62명(17.5%)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구직활동 계획 있음 105명(77.2%), 구직활동 계획 없음 31명(22.8%)이며,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 계획 있음 188명(85.8%), 구직활동 계획 없음 31명(14.2%)으로 나타났다.

〈표 5-29〉 성별에 따른 구직활동 계획

구분	남성	여성	전체
구직계획 없음	31 22.8%	31 14.2%	62 17.5%
구직계획 있음	105 77.2%	188 85.8%	293 82.5%
전체	136 100.0%	219 100.0%	355 100.0%

chi-square = 4.344, df = 1, p < .05

성별에 따라서 향후 6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4.344, df = 1,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0〉은 향후 6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응답자의 미취업기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미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가 188명(86.8%), 구직활동 계획이 없는 경우가 29명(13.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활동 계획 있음이 91명(77.1%), 구직활동 계획 없음이 27명(22.9%)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에 따른 향후 6개월 이내 구직활동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4.973, df = 1,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들이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 비해 구직활동 계획이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앞서 <표 5-25>에서 살펴본 바 있는 미취업기간 동안의 주요 활동 중 취업관련 활동을 한 비율이 미취업기간 1년 미만은 67.2%, 1년 이상은 54.5%로 나타난 점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30> 미취업기간에 따른 구직활동 계획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구직계획 없음	29 13.4%	27 22.9%	56 16.7%
구직계획 있음	188 86.6%	91 77.1%	279 83.3%
전체	217 100.0%	118 100.0%	335 100.0%

chi-square = 4.973, df = 1, p < .05

향후 6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를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31>과 같다. 기타 응답이 18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학력이나 기술,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7명(14.9%), 쉬고 싶어서 6명(12.8%),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5명(10.6%), 원하는 조건(임금 수준 제외)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명(8.5%), 이전에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직장)를 찾지 못해서 3명(6.4%), 원하는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없을 같아서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나와 맞지 않아서 각각 2명(4.3%)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험과 자격증 준비 7명, 임신과 육아 4명, 직업훈련 2명, 무엇을 하질 몰라서 1명, 역량개발 1명, 군 입대 1명 등이 있었다.

<표 5-31>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내 학력, 기술,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7	14.9
원하는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4.3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8.5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3	6.4
쉬고 싶어서	6	12.8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5	10.6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2	4.3
기타	18	38.3
계	47	100.0

<표 5-32> 일자리를 갖는데 가장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백분율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40	13.0
적성을 잘 알지 못해서	32	10.4
경력이 부족해서	57	18.6
성차별 때문에	1	0.3
나이가 맞지 않아서	17	5.5
학력, 기술, 자격이 맞지 않아서	44	14.3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5	1.6
급여수준이 맞지 않아서	29	9.4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37	12.1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5	1.6
건강이 좋지 않아서	2	0.7
경기침체로 채용기회 자체가 줄어서	16	5.2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13	4.2
기타	9	2.9
계	307	100.0

〈표 5-32〉는 일자리(직장)를 갖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력이 부족해서가 57명(1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력이나 기술, 자격이 맞지 않아서 44명(14.3%),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40명(13.0%),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37명(12.1%), 자신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해서 32명(10.4%), 급여수준이 맞지 않아서 29명(9.4%), 나이가 맞지 않아서 17명(5.5%), 경기침체로 채용기회 자체가 줄어서 16명(5.2%),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13명(4.2%), 기타 9명(2.9%),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5명(1.6%),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5명(1.6%), 건강이 좋지 않아서 2명(0.7%), 성차별 때문에 1명(0.3%)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경쟁 1명, 창업 준비 관련 자료부족 1명, 계약 1명 등이 있었다.

부천시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40명, 13.0%) 또는 적성을 잘 알지 못해서(32명, 10.4%) 일자리를 갖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스로의 적성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을 포함한 적극적인 노동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직장)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을 살펴보면(〈표 5-33〉 참조),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민간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00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워크넷 및 잡영 80명(24.8%), 신문이나 TV 또는 인터넷을 통한 기업 구인광고 71명(22.0%), 친구나 선·후배 등을 통해 33명(10.2%), 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직업안내기관 21명(6.5%),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8명(2.5%), 직접 방문해서 8명(2.5%),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명(0.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은 대체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직업안내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6.5%, 노동부 워크넷 및 잡영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24.8%에 그치는 등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직장) 정보를 얻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그 이유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3〉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직업안내기관	21	6.5
노동부 워크넷 및 잡영	80	24.8
민간취업알선기관	100	31.1
신문, TV, 인터넷을 통한 기업 구인광고	71	22.0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8	2.5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서	33	10.2
직접 방문해서	8	2.5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	0.3
계	322	100.0

〈표 5-34〉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증상

구분	빈도	백분율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	26	8.1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음	111	34.6
대인관계 기피	18	5.6
가족관계 약화	7	2.2
자신감 상실	85	26.5
우울증	13	4.0
게임 등에 몰두하며 현실 도피	13	4.0
신경질적인 반응	17	5.3
탈모	3	0.9
폭식이나 거식	7	2.2
불면증	6	1.9
지나친 음주	9	2.8
기타	6	1.9
계	321	100.0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나 증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5-34〉 참조),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111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신감 상실 85명(26.5%),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 26명(8.1%), 대인관계 기피 18명(5.6%), 신경질적인 반응 17명(5.3%), 우울증 13명(4.0%), 게임 등에 몰두하며 현실 도피 13명(4.0%), 지나친 음주 9명(2.8%), 가족관계 악화와 거식이나 폭식이 각각 7명(2.2%) 불면증과 기타가 각각 6명(1.9%), 탈모 3명(0.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응답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 1명, 모든 행동과 증상 1명, 위염 1명 등이 있었다.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나 증상별로는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유효응답자의 57.5%가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증상이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취업 관련된 스트레스의 정도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행동의 정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취업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희망하는 일자리

### (1)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가치관 검사는 성취, 사회적 기여, 개별성, 직업안정, 다양한 경험, 심신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과 기술 추구, 애국, 자율, 금전보상, 인정, 실내활동 등 13개 요인으로 구성된 직업가치관 검사를 제공한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부천시 미취업청년들의 직업가치관을 측정함에 있어 한국고용정보원 직업가치관 검사내용 중 영향력 발휘와 애국 등 2개 요인을 제외한 11개 요인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실태조사에서 측정한 직업가치관 11개 요인에 대해서 성별, 학력, 연령대, 미취업기간 등의 변수와 추론통계를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범주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결과는 〈표 5-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직업가치관 중 직업을 가짐에 있어서 자신의 발전과 성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19명(5.3%), 대체로 중요 188명(52.4%), 매우 중요 152명(42.3%)이며, 평균 3.37(SD=0.58)로 나타났다.

〈표 5-35〉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나의 발전과 성취	별로 중요하지 않음	19	5.3	3.3705	.58311
	대체로 중요	188	52.4		
	매우 중요	152	42.3		
	계	359	100.0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음	15	4.2	2.7493	.72358
	별로 중요하지 않음	105	29.2		
	대체로 중요	194	54.0		
	매우 중요	45	12.5		
계	359	100.0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일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음	3	0.8	3.2953	.69456
	별로 중요하지 않음	40	11.1		
	대체로 중요	164	45.7		
	매우 중요	152	42.3		
계	359	100.0			
해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음	3	0.8	3.5181	.63780
	별로 중요하지 않음	19	5.3		
	대체로 중요	126	35.1		
	매우 중요	211	58.8		
계	359	100.0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음	8	2.2	3.0168	.74934
	별로 중요하지 않음	73	20.4		
	대체로 중요	181	50.7		
	매우 중요	95	26.6		
계	357	100.0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3	3.4358	.59414
	별로 중요하지 않음	16	4.5		
	대체로 중요	167	46.6		
	매우 중요	174	48.6		
계	358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지시/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음	8	2.2	2.8579	.72033
	별로 중요하지 않음	98	27.3		
	대체로 중요	190	52.9		
	매우 중요	63	17.5		
	계	359	100.0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음	24	6.7	3.2869	.58244
	대체로 중요	208	57.9		
	매우 중요	127	35.4		
	계	359	100.0		
	전혀 중요하지 않음	4	1.1		
별로 중요하지 않음	31	8.6			
대체로 중요	178	49.6			
매우 중요	146	40.7			
계	359	100.0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일	전혀 중요하지 않음	6	1.7	3.1616	.71814
	별로 중요하지 않음	50	13.9		
	대체로 중요	183	51.0		
	매우 중요	120	33.4		
	계	359	100.0		
육체적 노동을 적게 요구하는 일	전혀 중요하지 않음	18	5.0	2.8106	.80348
	별로 중요하지 않음	102	28.4		
	대체로 중요	169	47.1		
	매우 중요	70	19.5		
	계	359	100.0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5명(4.2%), 별로 중요하지 않음 105명(29.2%), 대체로 중요 194명(54.0%), 매우 중요 45명(12.5%)이며, 평균 2.75(SD=0.72)로 나타났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3명(0.8%), 별로 중요하지 않음 40명(11.1%), 대체로 중요 164명(45.7%), 매우 중요 152명(42.3%)이며, 평균 3.30(SD=0.69)으로 나타났다.

해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3명(0.8%), 별로 중요하지 않음 19명(5.3%), 대체로 중요 126명(35.1%), 매우 중요 211명(58.8%)이며, 평균 3.52(SD=0.64)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8명(2.2%), 별로 중요하지 않음 73명(20.4%), 대체로 중요 181명(50.7%), 매우 중요 95명(26.6%)이며, 평균 3.02(SD=0.75)로 나타났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명(0.3%), 별로 중요하지 않음 16명(4.5%), 대체로 중요 167명(46.6%), 매우 중요 174명(48.6%)이며, 평균 3.44(SD=0.59)로 나타났다.

지시나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8명(2.2%), 별로 중요하지 않음 98명(27.3%), 대체로 중요 190명(52.9%), 매우 중요 63명(17.5%)이며, 평균 2.86(SD=0.72)으로 나타났다.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24명(6.7%), 대체로 중요 208명(57.9%), 매우 중요 127명(35.4%)이며, 평균 3.29(SD=0.58)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4명(1.1%), 별로 중요하지 않음 31명(8.6%), 대체로 중요 178명(49.6%), 매우 중요 146명(40.7%)이며, 평균 3.30(SD=0.67)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인정과 존중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6명(1.7%), 별로 중요하지 않음 50명(13.9%), 대체로 중요 183명(51.0%), 매우 중요 120명(33.4%)이며, 평균 3.16(SD=0.72)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노동을 적게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8명(5.0%), 별로 중요하지 않음 102명(28.4%), 대체로 중요 169명(47.1%), 매우 중요 70명(19.5%)이며, 평균 2.81(SD=0.80)로 나타났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직업가치관을 순위대로 정리하면, 해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3.52) >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3.44) > 나의 발전과 성취

(3.37) > 소득이 높은 일(3.30) >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일하는 것(3.30) >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3.29) >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일(3.16) >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3.02) > 지시나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2.86) > 육체적 노동을 적게 요구하는 일(2.81) >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2.75) 순이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은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며, 스스로 발전의 기회가 되고, 경제적 보상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경기가 불안정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고용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천시 미취업 청년에게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희망 일자리의 조건

<표 5-36>은 본 실태조사 참여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36>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

구분	빈도	백분율
제조업	40	1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1.8
건설업	8	2.4
도매 및 소매업	7	2.1
숙박 및 음식점업	9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	6.9
금융 및 보험업	8	2.4
부동산 및 임대업	3	0.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	1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1.8
공공서비스업	30	9.0
교육서비스업	19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8	1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	14.9
기타	10	3.0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33	9.9
계	335	100.0

가장 많은 응답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0명, 14.9%)이며, 다음으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48명(14.3%), 제조업 40명(11.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명(10.4%), 공공서비스업 30명(9.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명(6.9%), 교육서비스업 19명(5.7%), 기타 10명(3.0%), 숙박 및 음식점업 9명(2.7%),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 각각 8명(2.4%), 도매 및 소매업 7명(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명(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명(1.8%), 부동산 및 임대업 3명(0.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33명(9.9%)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에 대해서는(<표 5-37> 참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128명(37.9%),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체 없음 99명(29.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관 31명(9.2%), 정부기관 30명(8.9%), 법인단체 27명(8.0%),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18명(5.3%), 기타 5명(1.5%)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병원 5명이 있었다.

<표 5-37>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128	37.9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18	5.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관	31	9.2
정부기관	30	8.9
법인단체	27	8.0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체 없음	99	29.3
기타	5	1.5
계	338	100.0

<표 5-38>은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을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44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체 없음 42명(39.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관과 정부기관, 법인단체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6명(5.6%),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2명(2.8%)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 학력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43명(39.8%),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체 없음 32명(29.6%),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9명(8.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관과 정부기관, 법인단체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8명(7.4%)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39명(33.6%),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체 없음 25명(21.6%),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관 17명(14.7%), 정부기관 16명(13.6%), 법인단체 13명(11.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6명(5.2%)으로 나타났다.

〈표 5-38〉 학력에 따른 희망 사업체 유형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전체
내국인 운영회사	44 41.1%	43 39.8%	39 33.6%	126 38.1%
외국인 운영회사	3 2.8%	9 8.3%	6 5.2%	18 5.4%
정부투자/출연기관	6 5.6%	8 7.4%	17 14.7%	31 9.4%
정부기관	6 5.6%	8 7.4%	16 13.8%	30 9.1%
법인단체	6 5.6%	8 7.4%	13 11.2%	27 8.2%
희망하는 사업체 없음	42 39.3%	32 29.6%	25 21.6%	99 29.9%
전체	107 100.0%	108 100.0%	116 100.0%	331 100.0%

chi-square = 12.262, df = 2, p < .01

실태조사 참여자의 학력에 따른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22.202, df = 10,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자의 경우에는 고학력자에 비해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를 선호하거나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체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관, 정부기관, 법인단체와 같은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직장)를 선택할 때 희망하는 근로형태(〈표 5-39〉 참조)는 전일제(주 40시간 근로) 임금근로자가 214명(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시간(하루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86명(24.4%), 프리랜서 39명(11.1%), 기타 2명(0.6%)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48시간 2교대 1명, 근로형태는 상관없음 1명이 있었다.

〈표 5-39〉 희망하는 근로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단시간 임금근로자	86	24.4
전일제 임금근로자	214	60.8
자영업 창업 등 고용주	11	3.1
프리랜서	39	11.1
기타	2	0.6
계	352	100.0

취업 시 희망하는 근로형태 중 응답 비율이 낮은 자영업 창업 등 고용주와 프리랜서, 기타를 제외하고 성별과의 연관을 분석한 결과(〈표 5-40〉 참조), 남성은 전일제 임금근로자 90명(79.6%), 단시간 임금 근로자 23명(20.4%)이며, 여성은 전일제 임금근로자 123명(66.1%), 단시간 임금근로자 63명(33.9%)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 시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6.268, df = 1,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단시간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추가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단시간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 스스로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포기하거나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단시간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을 높이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40〉 성별에 따른 희망하는 근로형태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단시간 임금근로자	23 20.4%	63 33.9%	86 28.8%
전일제 임금근로자	90 79.6%	123 66.1%	213 71.2%
전체	113 100.0%	186 100.0%	299 100.0%

chi-square = 6.268, df = 1, p < .05

〈표 5-41〉은 성별에 따른 희망하는 월평균급여(상여금 포함)를 분석한 결과이다. 유효응답자 291명의 희망 월평균급여는 210.89만원(SD=58.27만원)이며, 남성 100명의 경우 평균 229.00만원(SD=58.90만원), 여성 191명의 경우 평균 201.20만원(SD=55.84만원)의 월평균급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이 희망하는 월평균급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t=3.957, df=289, p<.001)으로 나타났다.

〈표 5-41〉 성별에 따른 희망 월평균급여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t)	유의확률(df)
남성	100	229.000	58.90413	3.957	.0009(289)
여성	191	201.204	55.83920		
전체	291	210.890	58.27322		

### (3) 일자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급여수준, 고용 안정성, 업무 내용,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이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살펴보자(〈표 5-42〉 참조).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명(0.3%), 별로 중요하지 않음 17명(4.8%), 대체로 중요 151명(42.3%), 매우 중요 188명(52.7%)이며, 평균 3.47(SD=0.60)로 나타났다.

〈표 5-42〉 일자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급여수준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3		
	별로 중요하지 않음	17	4.8		
	대체로 중요	151	42.3	3.4734	.60196
	매우 중요	188	52.7		
	계	357	100.0		
직장(고용) 안정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0.6		
	별로 중요하지 않음	16	4.5		
	대체로 중요	133	37.3	3.5210	.61144
	매우 중요	206	57.7		
	계	357	100.0		
회사 규모	전혀 중요하지 않음	11	3.1		
	별로 중요하지 않음	125	35.0		
	대체로 중요	176	49.3	2.7143	.72060
	매우 중요	45	12.6		
	계	357	100.0		
전공/보유 기술과의 관련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6	1.7		
	별로 중요하지 않음	62	17.4		
	대체로 중요	191	53.5	3.0672	.71577
	매우 중요	98	27.5		
	계	357	100.0		
업무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3	0.8		
	별로 중요하지 않음	21	5.9		
	대체로 중요	235	66.0	3.1966	.57221
	매우 중요	97	27.2		
	계	356	100.0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별로 중요하지 않음	18	5.0		
	대체로 중요	194	54.3	3.3557	.57529
	매우 중요	145	40.6		
	계	357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급여수준	별로 중요하지 않음	20	5.6	3.4197	.59769
	대체로 중요	166	46.8		
	매우 중요	169	47.6		
	계	355	100.0		
직장(고용) 안정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0.6	3.5210	.61144
	별로 중요하지 않음	25	7.0		
	대체로 중요	148	41.6		
	매우 중요	181	50.8		
	계	356	100.0		
회사 규모	별로 중요하지 않음	13	3.6	3.5266	.56835
	대체로 중요	143	40.1		
	매우 중요	201	56.3		
	계	357	100.0		
전공/보유 기술과의 관련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6	1.7	3.3109	.73149
	별로 중요하지 않음	39	10.9		
	대체로 중요	150	42.0		
	매우 중요	162	45.4		
	계	357	100.0		

직장(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2명(0.6%), 별로 중요하지 않음 16명(4.5%), 대체로 중요 133명(37.3%), 매우 중요 206명(57.7%)이며, 평균 3.52(SD=0.61)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1명(3.1%), 별로 중요하지 않음 125명(35.0%), 대체로 중요 176명(49.3%), 매우 중요 45명(12.6%)이며, 평균 2.71(SD=0.72)로 나타났다.

전공, 보유한 기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6명(1.7%), 별로 중요하지 않음 62명(17.4%), 대체로 중요 191명(53.5%), 매우 중요 98명(27.5%)이며,

평균 3.07(SD=0.72)로 나타났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3명(0.8%), 별로 중요하지 않음 21명(5.9%), 대체로 중요 235명(66.0%), 매우 중요 97명(27.2%)이며, 평균 3.20(SD=0.57)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18명(5.0%), 대체로 중요 194명(54.3%), 매우 중요 145명(40.6%)이며, 평균 3.36(SD=0.58)으로 나타났다.

직업자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20명(5.6%), 대체로 중요 166명(46.8%), 매우 중요 169명(47.6%)이며, 평균 3.42(SD=0.60)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2명(0.6%), 별로 중요하지 않음 25명(7.0%), 대체로 중요 148명(41.6%), 매우 중요 181명(50.8%)이며, 평균 3.43(SD=0.65)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13명(3.6%), 대체로 중요 143명(40.1%), 매우 중요 201명(56.3%)이며, 평균 3.53(SD=0.57)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6명(1.7%), 별로 중요하지 않음 39명(10.9%), 대체로 중요 150명(42.0%), 매우 중요 162명(45.2%)이며, 평균 3.31(SD=0.73)로 나타났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이 일자리(직장)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순위대로 정리하면,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3.53) > 직장(고용)안정성(3.52) > 급여수준(3.47) > 근로시간(3.43) > 직업의 미래 전망(3.42) > 개인의 발전가능성(3.36) > 출퇴근 거리(3.31) > 업무내용(3.20) > 전공이나 보유한 기술과의 관련성(3.07) > 회사규모(2.71)의 순이다.

## 마) 노동권리 인식 수준

노동 및 고용지원에 대한 상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관계법 기준 준수,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 임금체불, 야간근로수당, 사회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신청기준, 산재보상, 고용보험 급여 등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목 10가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표 5-4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43〉 노동자 권리 인식 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취업할 때는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아야 한다	안다	303	84.9
	모른다	54	15.1
	계	357	100.0
근로계약 내용이 노동관계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다	안다	210	58.8
	모른다	147	41.2
	계	357	100.0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안다	308	86.3
	모른다	49	13.7
	계	357	100.0
아르바이트생도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안다	209	58.5
	모른다	148	41.5
	계	357	100.0
임금체불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안다	292	82.0
	모른다	64	18.0
	계	356	100.0
야간근로는 밤 10부터 아침 6시까지 근로이며, 이 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	안다	286	80.3
	모른다	70	19.7
	계	356	100.0
주당 15시간 이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	안다	221	61.9
	모른다	136	38.1
	계	357	100.0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안다	275	77.0
	모른다	82	23.0
	계	357	100.0
현장 실습생도 실습 중 당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안다	169	47.3
	모른다	188	52.7
	계	357	100.0
실업 시 고용보험가입자는 직업훈련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안다	222	62.2
	모른다	135	37.2
	계	357	100.0

노동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비율을 각 범주별로 살펴보면, ‘취업할 때는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아야 한다.’ 84.9%, ‘근로계약 내용이 노동관계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다.’ 58.8%,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86.3%, ‘아르바이트생도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58.5%, ‘임금체불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82.0%, ‘야간근로는 밤 10부터 아침 6시까지 근로이며, 이 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 80.3%, ‘주당 15시간 이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 61.9%,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77.0%, ‘현장 실습생도 실습 중 당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47.3%, ‘실업 시 고용보험가입자는 직업훈련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62.2%로 나타났다.

노동자 권리 인식 정도를 수량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 각 범주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 ‘1’ 점을 부여하고, 모르는 경우는 ‘0’ 점을 부여하여 최대 10점, 최저 0점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권리 인식 정도를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44〉 연령대에 따른 노동자 권리 인식 정도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9-24세	109	1.00	10.00	6.5321	2.39818
25-29세	130	1.00	10.00	7.1769	2.24977
30-34세	59	2.00	10.00	7.5424	1.98548
35-39세	53	4.00	10.00	7.6415	1.86150
합계	351	1.00	10.00	7.1083	2.23344

F = 4.329, df1 = 3, df2 = 347, p < .01

먼저 유효응답자 351명의 노동자 권리 인식 점수는 평균 7.11점(SD=2.23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109명의 평균 점수는 6.53점(SD=2.40점)이며, 25-29세 130명의 평균 점수는 7.18점(SD=2.2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34세 59명의 평균 점수는 7.54점(SD=1.99점), 34-39세 53명의 평균 점수는 7.64점(SD=1.8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노동자 권리 인식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 = 4.329, df1 = 3, df2 = 347,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정(Tukey)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범주는 19-24세와 30-34세 간 점수 차이(1.01점,  $p < .05$ ), 19-24세와 35-39세 간 점수 차이(1.11점,  $p < .05$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노동자 권리 인식 점수가 7.11점( $SD=2.23$ 점)으로 높지 않고, 고연령 집단의 노동자 권리 인식 점수에 비해 저연령 집단의 노동자 권리 인식 점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천시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 권리 관련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연령 청년들의 노동자 권리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심리사회적 특성

### (1) 현재 삶의 만족도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경제, 가족, 주변사람, 전반적인 삶의 질 등 삶의 주요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학력, 연령, 미취업기간에 따른 각 범주별 주관적 만족도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범주별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결과는 <표 5-45>와 같다.

본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불만족 17명(4.7%), 약간 불만족 99명(27.7%), 약간 만족 160명(44.7%), 매우 만족 82명(22.9%)이며, 평균 2.86( $SD=0.82$ )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매우 불만족 69명(19.3%), 약간 불만족 184명(51.4%), 약간 만족 88명(24.6%), 매우 만족 17명(4.7%)이며, 평균 2.15( $SD=0.78$ )로 주관적 만족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관계는 매우 불만족 11명(3.1%), 약간 불만족 50명(14.0%), 약간 만족 168명(46.9%), 매우 만족 129명(36.0%)이며, 평균 3.16( $SD=0.77$ )으로 주관적 만족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불만족 6명(1.7%), 약간 불만족 51명(14.2%), 약간 만족 197명(55.0%), 매우 만족 104명(29.1%)이며, 평균 3.11( $SD=0.70$ )으로 나타났다.

<표 5-45> 현재 삶의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건강상태	매우 불만족	17	4.7	2.8575 .82288
	약간 불만족	99	27.7	
	약간 만족	160	44.7	
	매우 만족	82	22.9	
	계	358	100.0	
경제상태	매우 불만족	69	19.3	2.1480 .77992
	약간 불만족	184	51.4	
	약간 만족	88	24.6	
	매우 만족	17	4.7	
	계	358	100.0	
가족과의 관계	매우 불만족	11	3.1	3.1592 .77410
	약간 불만족	50	14.0	
	약간 만족	168	46.9	
	매우 만족	129	36.0	
	계	358	100.0	
주변사람과의 관계	매우 불만족	6	1.7	3.1145 .69875
	약간 불만족	51	14.2	
	약간 만족	197	55.0	
	매우 만족	104	29.1	
	계	358	100.0	
전반적인 삶의 질	매우 불만족	29	8.1	2.6919 .79695
	약간 불만족	98	27.5	
	약간 만족	184	51.5	
	매우 만족	46	12.9	
	계	357	100.0	

전반적인 삶의 질은 매우 불만족 29명(8.1%), 약간 불만족 98명(27.5%), 약간 만족 184명(51.5%), 매우 만족 46명(12.9%)이며, 평균 2.69(SD=0.80)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상태 등의 만족도는 비교적 보통 이상의 수준이지만, 미취업 상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어려움이 낮은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정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진로 장애요인 인식

진로 관련 장애요인을 나이에 대한 중압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문제, 가족갈등, 직장생활에 대한 흥미, 직업 및 일자리 정보,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우울감, 고독감, 무력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 회복탄력성, 실패경험에 대한 인식,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 등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까운 것을 평정하게 하였다.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인식하는 진로 관련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46>과 같다.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73명(20.4%), 별로 그렇지 않다 150명(41.9%), 대체로 그렇다 109명(30.4%), 매우 그렇다 26명(7.3%)이며, 평균 2.25(SD=0.86)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 업무보다 사람관계가 더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9명(8.1%), 별로 그렇지 않다 118명(33.0%), 대체로 그렇다 144명(40.2%), 매우 그렇다 67명(18.7%)이며, 평균 2.70(SD=0.87)으로 나타났다.

건강 때문에 내 진로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22명(34.3%), 별로 그렇지 않다 170명(47.8%), 대체로 그렇다 47명(13.2%), 매우 그렇다 17명(4.8%)이며, 평균 1.88(SD=0.81)로 나타났다.

가족과 주변의 기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91명(25.4%), 별로 그렇지 않다 176명(49.2%), 대체로 그렇다 83명(23.2%), 매우 그렇다 8명(2.2%)이며, 평균 2.02(SD=0.76)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 별 흥미가 없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72명(20.1%), 별로 그렇지 않다 192명(53.6%), 대체로 그렇다 81명(22.6%), 매우 그렇다 13명(3.6%)이며, 평균 2.10(SD=0.75)으로 나타났다.

<표 5-46> 진로 장애요인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할 시기를 놓쳤음 (나이 중압감)	전혀 중요하지 않음	73	20.4	2.2458 .86054
	별로 중요하지 않음	150	41.9	
	대체로 중요	109	30.4	
	매우 중요	26	7.3	
계	358	100.0		
직장생활에서 업무보다 사람관계가 더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전혀 중요하지 않음	29	8.1	2.6955 .86613
	별로 중요하지 않음	118	33.0	
	대체로 중요	144	40.2	
	매우 중요	67	18.7	
계	358	100.0		
건강 때문에 내 진로가 영향 받고 있음 (건강 문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22	34.3	1.8848 .80889
	별로 중요하지 않음	170	47.8	
	대체로 중요	47	13.2	
	매우 중요	17	4.8	
계	356	100.0		
가족과 주변의 기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함 (가족 갈등)	전혀 중요하지 않음	91	25.4	2.0223 .75930
	별로 중요하지 않음	176	49.2	
	대체로 중요	83	23.2	
	매우 중요	8	2.2	
계	358	100.0		
직장생활에 별 흥미가 없음 (직장생활 흥미)	전혀 중요하지 않음	72	20.1	2.0978 .75143
	별로 중요하지 않음	192	53.6	
	대체로 중요	81	22.6	
	매우 중요	13	3.6	
계	358	100.0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제활동 부담)	전혀 중요하지 않음	14	3.9	3.0000 .83011
	별로 중요하지 않음	81	22.6	
	대체로 중요	154	43.0	
	매우 중요	109	30.4	
계	358	100.0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음 (일자리 정보)	전혀 중요하지 않음	40	11.2	2.2241 .65787
	별로 중요하지 않음	203	56.9	
	대체로 중요	108	30.3	
	매우 중요	6	1.7	
계	357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함 (자존감)	전혀 중요하지 않음	6	1.7	2.9132	.63225
	별로 중요하지 않음	70	19.6		
	대체로 중요	230	64.4		
	매우 중요	51	14.3		
	계	357	100.0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있음 (자기 효능감)	전혀 중요하지 않음	5	1.4	2.8792	.60933
	별로 중요하지 않음	75	21.1		
	대체로 중요	234	65.7		
	매우 중요	42	11.8		
	계	356	100.0		
슬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자주 들 (우울감)	전혀 중요하지 않음	56	15.7	2.2605	.78392
	별로 중요하지 않음	171	47.9		
	대체로 중요	111	31.1		
	매우 중요	19	5.3		
	계	357	100.0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자주 느낌 (고독감)	전혀 중요하지 않음	89	25.0	2.1152	.81927
	별로 중요하지 않음	149	41.9		
	대체로 중요	106	29.8		
	매우 중요	12	3.4		
	계	356	100.0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는 편임 (회복탄력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9	2.5	2.7877	.64358
	별로 중요하지 않음	93	26.0		
	대체로 중요	221	61.7		
	매우 중요	35	9.8		
	계	358	100.0		
노력해도 소용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 (무력감)	전혀 중요하지 않음	66	18.4	2.1453	.78224
	별로 중요하지 않음	195	54.5		
	대체로 중요	76	21.2		
	매우 중요	21	5.9		
	계	358	100.0		
실패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실패 내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9	2.5	2.9804	.71570
	별로 중요하지 않음	68	19.0		
	대체로 중요	202	56.4		
	매우 중요	79	22.1		
	계	358	100.0		
성공/실패는 노력보다 운이 더 작용함 (외적 통제 소재)	전혀 중요하지 않음	27	7.5	2.5335	.75053
	별로 중요하지 않음	142	39.7		
	대체로 중요	160	44.7		
	매우 중요	29	8.1		
	계	358	100.0		

일을 통해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3.9%), 별로 그렇지 않다 81명(22.6%), 대체로 그렇다 154명(43.0%), 매우 그렇다 109명(30.4%)이며, 평균 3.00(SD=0.83)으로 나타나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이 미취업 상황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0명(11.2%), 별로 그렇지 않다 203명(56.9%), 대체로 그렇다 108명(30.3%), 매우 그렇다 6명(1.7%)이며, 평균 2.22(SD=0.66)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7%), 별로 그렇지 않다 70명(19.6%), 대체로 그렇다 230명(64.4%), 매우 그렇다 51명(14.3%)이며, 평균 2.91(SD=0.63)로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4%), 별로 그렇지 않다 75명(21.1%), 대체로 그렇다 234명(65.7%), 매우 그렇다 42명(11.8%)이며, 평균 2.88(SD=0.61)로 나타났다.

슬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자주 드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56명(15.7%), 별로 그렇지 않다 171명(47.9%), 대체로 그렇다 111명(31.1%), 매우 그렇다 19명(5.3%)이며, 평균 2.26(SD=0.78)으로 나타났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89명(25.0%), 별로 그렇지 않다 149명(41.9%), 대체로 그렇다 106명(29.8%), 매우 그렇다 12명(3.4%)이며, 평균 2.12(SD=0.82)로 나타났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9명(2.5%), 별로 그렇지 않다 93명(26.0%), 대체로 그렇다 221명(61.7%), 매우 그렇다 35명(9.8%)이며, 평균 2.79(SD=0.64)로 나타났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66명(18.4%), 별로 그렇지 않다 195명(54.5%), 대체로 그렇다 76명(21.2%), 매우 그렇다 21명(5.9%)이며, 평균 2.15(SD=0.78)로 나타났다.

겪은 실패 경험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

다 9명(2.5%), 별로 그렇지 않다 68명(19.0%), 대체로 그렇다 202명(56.4%), 매우 그렇다 79명(22.1%)이며, 평균 2.98(SD=0.72)로 나타났다.

성공이나 실패에는 노력보다는 운이 더 작용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7명(7.5%), 별로 그렇지 않다 142명(39.7%), 대체로 그렇다 160명(44.7%), 매우 그렇다 29명(8.1%)이며, 평균 2.53(SD=0.75)으로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 참여자의 진로 장애요인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부정적 의미의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역점수화 하고, 진로 장애요인을 종합할 수 있는 총화평 정착도를 만들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표 5-47〉참조). 총화평 정착도의 점수는 1~4점의 값을 가지며, 4점에 가까울수록 장애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 357명의 진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점수 평균은 2.72점(SD=0.36점)으로 긍정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 136명의 평균은 2.77점(SD=0.39점), 여성 221명의 평균은 2.69점(SD=0.34점)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진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t=3.957, df=289, p<.001$ ), 진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47〉 성별에 따른 진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t)	유의확률(df)
남성	136	2.7736	.38973	2.197	.029(355)
여성	221	2.6869	.34415		
전체	357	2.7186	.36438		

### (3)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성별, 학력, 연령대, 미취업기간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 5-48〉에는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효응답자 357명의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 중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40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00명(28.0%),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0명(22.4%), 지금보다 조금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25명(7.0%), 지금보다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12명(3.4%)으로 나타났다. 유효응답자의 67.2%가 앞으로의 삶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5-48〉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

구분	빈도	백분율
지금보다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12	3.4
지금보다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	25	7.0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80	22.4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140	39.2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이다	100	28.0
계	357	100.0

## 사) 일상생활

### (1) 일상 활동

〈표 5-49〉는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지난 2주간의 주된 활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49〉 지난 2주간의 주된 활동

구분	빈도	백분율
일 자리를 갖기 위한 관련 활동	112	32.2
스펙준비	97	27.9
공무원 시험 준비	10	2.9
유학이나 해외연수 준비	1	0.3
생활비를 벌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음	44	12.6
여행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	27	7.8
특별한 일 없이 지냄	53	15.2
기타	4	1.1
계	348	100.0

독서 등 구직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112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학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 등 스펙 준비 97명(27.9%), 특별한 일 없이 지냄 53명(15.2%),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음 44명(12.6%), 여행 등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음 27명(7.8%), 공무원 시험 준비 10명(2.9%), 기타 4명(1.1%), 유학이나 해외연수 준비 1명(0.3%)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육아를 하면서 보냈다는 응답이 2명 있었다.

<표 5-50> 일상생활 행동 패턴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집에 있기 보다는 외출을 자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8.9	2.5460 .81363
	별로 그렇지 않다	141	39.3	
	대체로 그렇다	144	40.1	
	매우 그렇다	42	11.7	
	계	359	100.0	
주로 규칙적인 활동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8.9	2.4525 .73468
	별로 그렇지 않다	152	42.5	
	대체로 그렇다	154	43.0	
	매우 그렇다	20	5.6	
	계	358	100.0	
인터넷보다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을 좋아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7.0	2.8123 .82521
	별로 그렇지 않다	86	24.1	
	대체로 그렇다	177	49.6	
	매우 그렇다	69	19.3	
	계	357	100.0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여럿이 어울리는 것이 편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	7.9	2.5337 .79540
	별로 그렇지 않다	150	42.1	
	대체로 그렇다	138	38.8	
	매우 그렇다	40	11.2	
	계	356	100.0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3.1	2.9494 .70629
	별로 그렇지 않다	65	18.3	
	대체로 그렇다	211	59.3	
	매우 그렇다	69	19.4	
	계	356	100.0	

<표 5-50>은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이다. 집에 있기 보다는 외출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8.9%), 별로 그렇지 않다 141명(39.3%), 대체로 그렇다 144명(40.1%), 매우 그렇다 42명(11.7%)이며, 평균 2.55(SD=0.81)로 나타났다.

주로 규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2명(8.9%), 별로 그렇지 않다 152명(42.5%), 대체로 그렇다 154명(43.0%), 매우 그렇다 20명(5.6%)이며, 평균 2.45(SD=0.73)로 나타났다.

인터넷보다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5명(7.0%), 별로 그렇지 않다 86명(24.1%), 대체로 그렇다 177명(49.6%), 매우 그렇다 69명(19.3%)이며, 평균 2.81(SD=0.83)로 나타났다.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어우리는 것이 편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8명(7.9%), 별로 그렇지 않다 150명(42.1%), 대체로 그렇다 138명(38.8%), 매우 그렇다 40명(11.2%)이며, 평균 2.53(SD=0.80)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3.1%), 별로 그렇지 않다 65명(18.3%), 대체로 그렇다 211명(59.3%), 매우 그렇다 69명(19.4%)이며, 평균 2.95(SD=0.71)로 나타났다.

## (2) 경제 상황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학력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51>과 같다. 먼저 유효응답자 337명의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254.58만원(SD=158.87만원)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학력자의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210.81만원(SD=147.39만원)이며, 전문대학 졸업자의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269.91만원(SD=162.63만원), 그리고 4년제 이상 졸업 학력자의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280.21만원(SD=158.40만원)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한 달 최소 생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 6.347, df1 =

2, df2 = 334,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정(Tukey)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범주는 고졸 이하 학력자와 전문대학 졸업자 간의 차이(59.10만원, p < .05), 고졸 이하 학력자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간의 차이(69.40만원, p < .0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1> 학력에 따른 월 최소 생활비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8	10.00	1000.00	210.8148	147.39204
전문대학 졸업	111	20.00	800.00	269.9099	162.6289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18	30.00	1000.00	280.2119	158.40335
전 체	337	10.00	1000.00	254.5786	158.86506

F = 6.347, df1 = 2, df2 = 334, p < .01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52>와 같다. 남성 129명이 응답한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231.51만원(SD=167.13만원)이며, 여성 209명이 응답한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269.75만원(SD=153.9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t=-2.147, df=336, p< .05)으로 나타났다.

<표 5-52> 성별에 따른 월 최소 생활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정통계량(t)	유의확률(df)
남성	129	231.512	167.12716	-2.147	.033(336)
여성	209	269.751	153.89512		

<표 5-53>은 본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과 현재 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90

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마련 77명(22.8%), 예전에 모아둔 저축 75명(22.3%), 배우자의 수입 49명(14.5%), 외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줄임 28명(8.3%), 정부지원 13명(3.9%), 지인 등의 도움 3명(0.9%), 기타 2명(0.6%)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걱정이라는 응답이 153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문제 122명(37.3%), 정신적 건강 15명(4.6%), 주거환경 문제 14명(4.3%), 신체적 건강 8명(2.4%), 기타 7명(2.1%), 가족과의 관계 5명(1.5%), 가족 이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3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취업의 어려움 2명, 부모님 건강 1명 등이 있었다. 유효 응답자의 84.1%가 미취업상태로 인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3> 생활비 / 현재 겪는 어려움

구분		빈도	백분율
생활비 마련 방법	부모 또는 형제자매 도움	90	26.7
	배우자의 수입	49	14.5
	지인 등의 도움	3	0.9
	예전에 모아둔 저축	75	22.3
	정부지원	13	3.9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마련	77	22.8
	외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줄임	28	8.3
	기타	2	0.6
	계	337	100.0
가장 큰 어려움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문제	122	37.3
	주거환경 문제	14	4.3
	정신적 건강	15	4.6
	신체적 건강	8	2.4
	가족과의 관계	5	1.5
	가족 이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3	0.9
	미래에 대한 준비와 걱정	153	46.8
	기타	7	2.1
계	327	100.0	

〈표 5-54〉는 현재 부채(빚)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부채가 있는 경우는 120명(33.4%)이며, 부채가 없는 경우는 239명(66.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살펴보면, 19-24세의 경우는 부채 있음 31명(27.2%), 부채 없음 83명(72.8%), 25-29세의 경우에는 부채 있음 41명(30.8%), 부채 없음 92명(69.2%), 30-39세의 경우는 부채 있음 48명(42.9%), 부채 없음 64명(57.1%)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부채(빚) 소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square = 6.871, df = 2,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천시 미취업 청년 중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4〉 연령대에 따른 부채(빚) 소유 여부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부채 있음	31 27.2%	41 30.8%	48 42.9%	120 33.4%
부채 없음	83 72.8%	92 69.2%	64 57.1%	239 66.6%
전체	114 100.0%	133 100.0%	112 100.0%	359 100.0%

chi-square = 6.871, df = 2, p < .05

〈표 5-55〉는 현재 부채(빚)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120명을 대상으로 부채를 갖게 된 원인(복수 응답)을 연령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전체 유효 응답 수가 148인 이유는 부채 원인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했기 때문이다.

부채 원인은 학자금대출 등 교육비 마련 목적이 57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택자금 마련 목적 34명(23.0%), 생활비 마련 목적 32명(21.6%), 본인과 가족을 위한 의료비 마련 목적과 기타 목적 각각 8명(5.4%), 다른 부채(빚)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 6명(4.1%),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 3명(2.0%)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부채 원인을 살펴보면, 19-24세는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 마련 18명(45.0%), 생활비 마련 10명(25.0%), 주택자금 마련 7명(17.5%) 등의 순이며, 25-29세는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 마련 34명(66.7%), 생활비 마련 8명(15.7%), 기타 4명(7.8%)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30-39세는 주택자금 마련 25명(43.9%), 생활비

마련 14명(2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주로 학자금대출 등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30대는 주로 주택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빚)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20대와 30대들은 학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계결과가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부채를 갖게 된 경우가 21.6%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미취업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채를 얻게 되면, 부채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채가 있는 가구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금 납부까지 어려워진다는 이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부채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부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5-55〉 연령대에 따른 부채(빚) 원인(복수 응답)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학자금대출 등 교육비 마련	18 45.0%	34 66.7%	5 8.8%	57 38.5%
본인, 가족 의료비 마련	2 5.0%	2 3.9%	4 7.0%	8 5.4%
주택자금 마련	7 17.5%	2 3.9%	25 43.9%	34 23.0%
생활비 마련	10 25.0%	8 15.7%	14 24.6%	32 21.6%
사업자금 마련	0 0.0%	0 0.0%	3 5.3%	3 2.0%
부채(빚) 변제 자금 마련	2 5.0%	1 2.0%	3 5.3%	6 4.1%
기타	1 2.5%	4 7.8%	3 5.3%	8 5.4%
전체	40 100.0%	51 100.0%	57 100.0%	148 100.0%

〈표 5-56〉은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균 부채액과 부채원인별 부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부채를 가진 응답자 114명의 부채 총액 평균은 2,368.81만원(SD=3,725.9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원인별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부채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주택자금 마련 목적으로 부채를 가진 경우(32명, 평균=5,559.38만원, SD=5,496.79만원)이며, 다음으로 사업자금 마련 목적의 부채가 있는 경우(3명, 평균=4,400.00만원, SD=4,932.54만원), 의료비 마련 목적의 부채가 있는 경우(7명, 평균=2,214.29만원, SD=2,113.79만원), 다른 부채 변제를 위한 부채가 있는 경우(4명, 평균=1,756.50만원, SD=1,489.91만원), 교육비 마련 목적 부채가 있는 경우(55명, 평균=1,327.82만원, SD=1,512.90만원), 생활비 마련 목적 부채가 있는 경우(30명, 평균=1,082.20만원, SD=1,882.98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6> 부채 원인별 부채 총액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육비	55	40.00	10000.00	1327.8182	1521.90267
의료비	7	200.00	5000.00	2214.2857	2113.78694
주택비	32	200.00	30000.00	5559.3750	5496.79434
생활비	30	26.00	10000.00	1082.2000	1882.98343
사업자금	3	700.00	10000.00	4400.0000	4932.54498
부채 변제	4	26.00	3000.00	1756.5000	1489.91129
기타	8	20.00	5000.00	1548.7500	2166.62633
부채 총액	114	20.00	30000.00	2386.8070	3725.96336

<표 5-57>은 현재 부채가 있는 응답자 120명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인지 여부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제도 인지 정도와 참여 의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신용불량자 여부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인 응답자가 2명(1.7%),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113명(94.2%),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5명(4.2%)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56명(46.7%), 조

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명(25.0%),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2명(18.3%),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명(10.0%)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제도를 통해 부채를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0명(42.4%),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45명(38.1%),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12명(10.2%),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1명(9.3%)으로 나타났다.

<표 5-57> 신용 현황 / 부채탕감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신용불량자 여부	신용불량자	2	1.7
	신용불량자 아님	113	94.2
	모르겠다	5	4.2
계		120	100.0
개인회생 파산제도 인지 여부	전혀 모른다	22	18.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56	46.7
	조금 알고 있다	30	25.0
개인회생 파산제도 참여 의사	잘 알고 있다	12	10.0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12	10.2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	45	38.1
개인회생 파산제도 참여 의사	참여할 생각이 있다	50	42.4
	반드시 참여하겠다	11	9.3
	계	118	100.0

## 아) 혼인과 출산

<표 5-58>은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상황과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283명(79.7%), 사실혼은 포함한 기혼 63명(17.7%), 이혼 4명(1.1%), 기타 3명(0.8%), 별거 2명(0.6%)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92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을 할지 혼자 살지 결정하지 못했음 62명(22.1%), 현재 결혼상대는 없으나 결혼할 생각임 56명(19.9%), 결혼상대가 있으며 그(녀)와 결혼할 계획임 36명(12.8%), 결혼상대가 있으나 결혼 계획을 못 잡고 있음 30명(10.7%), 기타 5명(1.8%)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산할 생각이 없음 90명(35.6%), 출산할지 안할지 결정하지 못했음 84명(33.2%), 반드시 출산할 생각임 77명(30.4%), 기타 2명(0.8%)으로 나타났다.

〈표 5-58〉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혼인상태	미혼	283	79.7
	기혼(동거포함)	63	17.7
	이혼	4	1.1
	별거	2	0.6
	기타	3	0.8
	계	355	100.0
결혼 의사	결혼할 생각이 없음	92	32.7
	상대가 있으나 결혼계획을 못잡고 있음	30	10.7
	상대와 결혼할 계획임	36	12.8
	결혼할지 혼자 살지 결정하지 못했음	62	22.1
	상대는 없으나 결혼할 생각임	56	19.9
	기타	5	1.8
계	281	100.0	
미혼자 출산 계획	출산할 생각이 없음	90	90
	출산할지 안할지 결정하지 못했음	84	84
	반드시 출산할 생각임	77	77
	기타	2	2
	계	253	253
기혼자 자녀 유무	없음	15	25.4
	있음	44	74.6
	계	59	100.0
기혼자 출산 계획	출산할 생각이 없음	8	53.3
	출산할지 안할지 결정하지 못했음	4	26.7
	반드시 출산할 생각임	3	20.0
	계	15	100.0

현재 기혼, 이혼, 별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44명(74.6%), 없다는 응답이 15명(25.4%)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15명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출산할 생각이 없음 8명(53.3%), 출산하지 안할지 결정하지 못했음 4명(26.7%), 반드시 출산할 생각임 3명(20.0%)으로 나타났다.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 중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아직 결혼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54.8%에 달하고, 출산계획에 있어서도 출산할 생각이 없거나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 비율이 68.8%에 달한다. 그리고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현재 기혼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 아직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의 81.3%가 출산할 생각이 없거나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이 현재의 미취업상태와 경제적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천시 미취업 청년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그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정책적 견해

〈표 5-59〉는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39명(12.7%), 실직 및 취업준비기간 중의 생활지원 강화 37명(12.1%),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36명(11.8%), 양질의 일자리 확대 34명(11.1%), 기업 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강화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각각 33명(10.8%), 새로운 직종 발굴 및 홍보 26명(8.5%), 인턴십 또는 직장체험 제도 확대 21명(6.9%),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20명(6.5%), 직업상담, 직업진로지도 강화 15명(4.9%), 취업/창업 지원 강화 9명(2.9%), 기타 3명(1.0%)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급여인상 1명, 스펙차별철폐 1명, 인턴제에서 고학력자 제도 1명이 있었다.

〈표 5-59〉 미취업자 취업 정책

구분	빈도	백분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36	11.8
기업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강화	33	10.8
인턴십, 직장체험 제도 확대	21	6.9
직업상담, 직업진로지도 강화	15	4.9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3	10.8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20	6.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39	12.7
새로운 직종 발굴 및 홍보	26	8.5
실직 및 취업준비기간 중의 생활지원 강화	37	12.1
취업/창업 지원 강화	9	2.9
양질의 일자리 확대	34	11.1
기타	3	1.0
계	306	100.0

〈표 5-60〉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청년 정책

구분	빈도	백분율
청년 노동권 및 권리 보호 증진 노력	97	30.2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 노력	30	9.3
청년 부채 탕감 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노력	30	9.3
청년들의 생활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43	13.4
청년 문화예술인의 상시적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17	5.3
청년정책 추진의 체계적 지원 및 청년시설 설치, 운영	13	4.0
청년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4	1.2
일자리 진입을 위한 교육, 상담, 자립지원 등 정책 개선 혁신	44	13.7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다양화와 지원	14	4.4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 교육 및 지원 실행	29	9.0
계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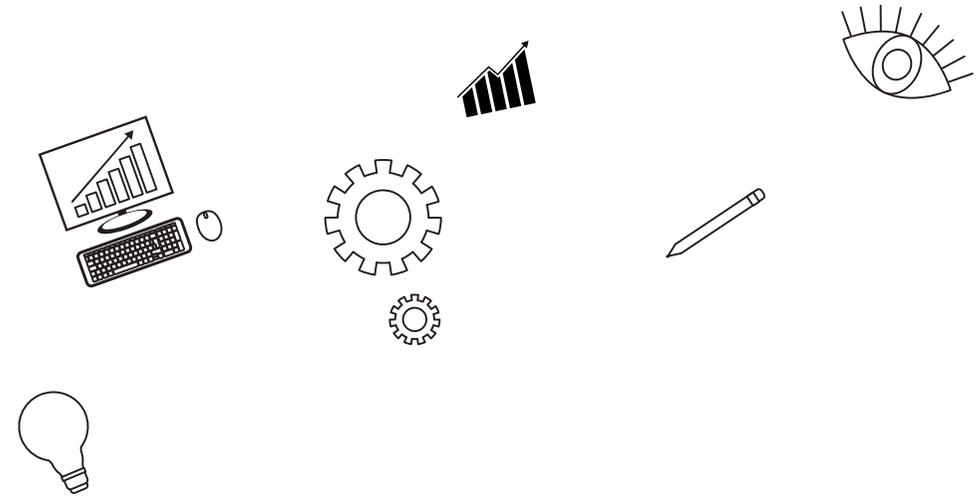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의견(〈표 5-60〉 참조)은 일하는 청년의 노동권 및 권리보호 증진 노력 97명(30.2%), 청년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지원 등의 정책 개선 및 혁신사업 44명(13.7%), 보건,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청년들의 생활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43명(13.4%),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 노력 30명(9.3%), 청년 부채 탕감 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노력 30명(9.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 교육 및 지원 실행 29명(9.0%), 청년 문화예술인의 상시적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17명(5.3%),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다양화와 지원, 청년 참여 네트워크 확대 14명(4.4%), 청년정책 추진의 체계적 지원 및 청년시설 설치와 운영 13명(4.0%), 청년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4명(1.2%)으로 나타났다.

〈표 5-61〉은 부천시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 인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61〉 미취업자를 위한 부천시 우선과제

구분	빈도	백분율
부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중장기적 청년정책 추진	34	10.9
청년할당제 도입	10	3.2
공공부문 고용창출형 청년 일자리 확대	50	16.0
청년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 법률구제서비스 확충	22	7.0
부천형 채용장려금, 청년희망 통장 도입으로 고용촉진 장려	26	8.3
청년취업/창업종합지원 확대	81	25.9
주거지원비 및 화재보험료 지원 등	11	3.5
부천형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제도 도입	27	8.6
청년형 햇살가게	5	1.6
빈곤 청년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 생활기반 조성	5	1.6
청년활동 플랫폼, 서울시 청년허브	3	1.0
미취업자 종합검진 프로그램 운영	6	1.9
지역산업 연계 워킹홀리데이 추진	24	7.7
청년을 위한 청년의 거리 지정 운영	5	1.6
기타	4	1.3
계	313	100.0

취업 및 훈련정보, 직장체험 및 진로지도, 경력관리 등 청년취업·창업종합지원 확대 (JOB-CALL) 81명(25.9%), 공공부문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한 고용창출형 청년 일자리 확대 50명(16.0%), 부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지원정책 추진 근거 및 중장기적 청년정책 추진 34명(10.9%), 서울시나 성남시와 같이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제도 도입 27명(8.6%), 중앙부처의 채용장려금 및 청년 희망통장 등 부천시 지원확대로 고용촉진 장려 26명(8.3%), 지역산업 연계 워킹 홀리데이 추진/직장체험과 적정임금지급 24명(7.7%), 청년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 법률 구제서비스 확충 22명(7.0%), 청년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주거지원비 및 화재보험료 지원 11명(3.5%), 부천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위원회별 청년참여 확대/청년할당제 도입 10명(3.2%), 미취업자 종합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가구 자녀대상 무상접종과 지원 확대 6명(1.9%), 청년 빈곤퇴치를 위한 부채탕감 및 청년형 자활기업 육성으로 자립기반 조성/청년형 햇살가게 5명(1.6%), 빈곤 청년 대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빈곤청년 종합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생활기반 조성 5명(1.6%), 청년 문화, 활동,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의 거리 지정 운영/청년 창업거리, 프리마켓 조성 5명(1.6%), 기타 4명(1.3%),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커뮤니티 거점 공간 마련/청년활동 플랫폼(서울시의 청년허브) 3명(1.0%)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실직 및 취업기간 중 생활지원 강화 1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명, 최저임금인상 1명 등이 있었다.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제6장 정책제언



## 제6장 정책제언

청년 고용불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생산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병행하 여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세대 맞춤형 정책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안정적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함께 더 나아가 저출산 해결이 라는 국가적 의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 천시는 2016년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 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례에 기초하여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함과 동시에 청년 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허브와 같은 공간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할 뿐 아니라 청년 고용실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체적인 계획 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 고용실태조사는 조사 자체로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1. 부천 거주 청년들의 욕구

본 절에서는 부천시 거주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관련 정책에 대한 욕구를 분 석한 자료를 살펴본 후 정책적 함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부천시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1>과 같다. 19~24세의 비교적 낮은 연령에서는 ‘공공부문 청 년 일자리 확대’가 2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25~29세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8.7%로 가장 높았고, 30~39세에서는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격차 완화’가 31.3%로 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사회경험의 증가에 따라 고용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 더라도 준비기간이 길지 않은 이들이 많은 19~24세의 경우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질을 일자리를 추구하지만 일자리 수가 적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5세 이상 연령층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불안정고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비정규직 상태를 인정하고 다만 정규직과의 임금 등 격차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5~29세와 30~39세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5~29세의 응답률이 18.1%인데 비해 30~39세에서는 무려 31.3%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거나 경제활동을 오래하게 되면서 점차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

〈표 6-1〉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142 26.2%	21 6.3%	5 3.9%	168 16.8%
기업의 청년 의무 채용 제도 강화	96 17.7%	43 13.0%	10 7.8%	149 14.9%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69 12.8%	62 18.7%	19 14.8%	150 15.0%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75 13.9%	38 11.5%	11 8.6%	124 12.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최저임금 상승 등 포함)	49 9.1%	60 18.1%	40 31.3%	149 14.9%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및 직종 발굴 및 홍보	36 6.7%	27 8.2%	10 7.8%	73 7.3%
실직 및 취업 준비기간 중의 생활지원 강화	36 6.7%	43 13.0%	8 6.3%	87 8.7%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38 7.0%	37 11.2%	25 19.5%	100 10.0%
전체	541 100.0%	331 100.0%	128 100.0%	1000 100.0%

다음으로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해 부천시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를 살펴보면(〈표 6-2〉 참조), 19~24세와 25~29세에서는 모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에 비해 30~39세에서는 ‘청년주택 및 주거환경, 복지 등 개선 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응답하였다. 우선과제에 대한 응답은 가정형태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29세 이하 집단에서는 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독립된 가정을 꾸렸거나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아가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30~39세에게는 주택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2〉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부천시의 우선과제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부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부천시 청년정책 추진	41 7.6%	22 6.6%	4 3.1%	67 6.7%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181 33.5%	80 24.2%	20 15.6%	281 28.1%
청년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 법률구제 서비스 확충	123 22.7%	54 16.3%	20 15.6%	197 19.7%
부천형 채용장려금, 청년희망 통장 도입으로 고용촉진 장려	49 9.1%	44 13.3%	20 15.6%	113 11.3%
청년취업 및 창업 종합 지원 확대	68 12.6%	62 18.7%	18 14.1%	148 14.8%
청년주택 및 주거환경, 복지 등 개선 지원	52 9.6%	49 14.8%	34 26.6%	135 13.5%
부천형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제도 도입 (성남, 서울)	11 2.0%	11 3.3%	8 6.3%	30 3.0%
지역산업 연계 워킹홀리데이 추진 (적정임금 지급 등)	16 3.0%	9 2.7%	4 3.1%	29 2.9%
전체	541 100.0%	331 100.0%	128 100.0%	1000 100.0%

우선과제 역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응답률을 보면 인식변화의 흐름이 더욱 명확해진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는 19~24세 33.5%, 25~29세 24.2%, 30~39세 15.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졌다. 젊은 층에서는 공무원 등 청년 선호직종인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점차 현실에 따른 취업을 고려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반면 ‘청년주택 및 주거환경,

복지 등 개선 지원'은 19~24세 9.6%, 25~29세 14.8%, 30~39세 26.6%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로 응답률도 높아졌다. 특이할 점은 19세로 성년이 된 후 6~10년이 지난 25~29세에서도 주거문제에 대한 욕구가 크게 높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 순위에서도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24.2%와 '청년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 법률구제 서비스 확충' 16.3%에 이어 3번째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청년들이 독립을 미루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청년정책의 우선과제 역시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부천시의 우선과제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6-3>은 부천시 청년 정책의 우선적 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다.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부천시의 우선과제와 유사하게 25세 이상 응답자에서는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 노력'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부천시의 우선과제와 같은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19~24세에서는 '청년 노동권 및 권리 보호 증진 노력'이 3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9~24세 청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노동인권 보장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욕구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3> 청년정책의 우선과제

구분	19-24세	25-29세	30-39세	전체
청년 노동권 및 권리 보호 증진 노력	194 35.9%	66 19.9%	17 13.3%	277 27.7%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 노력	136 25.1%	97 29.3%	48 37.5%	281 28.1%
청년부채 탕감 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68 12.6%	104 31.4%	31 24.2%	203 20.3%
청년들의 생활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44 8.1%	34 10.3%	10 7.8%	88 8.8%
청년 취업 및 창업 등 교육상담, 자립지원 등 정책 개선 혁신사업	54 10.0%	15 4.5%	9 7.0%	78 7.8%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 교육 및 지원 실행	45 8.3%	15 4.5%	13 10.2%	73 7.3%
전체	541 100.0%	331 100.0%	128 100.0%	1000 100.0%

## 2.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 기본계획

우선 청년 고용창출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써 청년기본정책 조례 제정 및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제도적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행정단위에서의 청년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정홍준, 2016:80).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청년 정책의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병행할 경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달성 과제를 계획하여 그에 맞는 추진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천시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팀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등 광역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청년정책<sup>7)</sup>을 참고하여 기초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적인 특성은 청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청년 전담부서를 설치할 뿐 아니라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년의 고용 문제뿐 아니라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파악

7) 서울시는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4가지 정책목표(참여, 도약, 자립, 향유)를 집약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 업무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집중적 실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6년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북부 4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충남지역 청년 거주 현실을 파악하고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정홍준, 2016. 경기도, 부천시 청년정책 및 제도발굴을 위한 연구보고서, 김혜경 외, 2016.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참조). 정홍준(2016)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31곳에 달한다. 조례를 근거로 시정부와 의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시 역시 고용문제를 넘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설계할 필요<sup>8)</sup>가 있다.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의 참여, 역량강화, 입직·안정, 생활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정책 분류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며,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문제를 설계하는 것은 부천시의 책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에 매몰될 경우 고용촉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뿐 아니라 고용 이외의 청년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천시의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우선과제를 보더라도 청년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청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에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보류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정책을 계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3. 고용실태 조사의 정례화

부천시의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청년 고용실태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현황 파악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정

8) 이와 관련하여 부천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부천시의회 청년정책연구단체 등이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와 주거불안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부천신문 2015.10.21. “부천 떠나는 청년들, 청년정책 필요해” 참조). 이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입법발의안 내용을 보면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복지 부분의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문제의 전반적인 지원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책의 공백 지점을 드러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청년 고용실태조사는 시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 고용실태 조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현황을 토대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에 소재하는 작업장의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취업하지 않은 혹은 못한 이유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정책 입안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맞춤형 고용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부천시 청년 정책에 관한 제언은 우선적으로 청년세대의 맞춤형 고용정책의 필요성과 연령별·시기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경우 대학졸업 직후 취업하는 경우와 졸업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상황은 다르다. 즉 동일한 조건에서 취업을 향한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불안이 증가하고 따라서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이른바 ‘묻지마 취업’을 하게 되고, 열악한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되고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사업체 입장에서도 인력확보에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원인이기도 하다(정홍준, 2016:33).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경우보다 30대의 고용문제가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30대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30대의 조건에 맞는 취업시장에 관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과 관련하여 결혼 인식 여부에 관한 분석을 해석하게 되면 고용의 불안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혼의 경우에도 출산할 생각이 없거나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고용안정과 삶의 질의 향상은 안정적인 가정을 구성

하고자 하는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령별 최종학력에 따른 취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학교 졸업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으로 인해 퇴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용직의 노동 조건 역시 불안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대의 경우에 임시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청년 실업, 취업난, 질 낮은 일자리의 문제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실질적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연령별·시기별 맞춤형 고용정책수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 5. 청년 고용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부천시와 노사민정협의회간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소통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취합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관 협조체계는 중요하다.

더 나아가 청년 당사자와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커뮤니티의 활성화와 함께 청년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정례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6.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지원 확대

부천시 소재 사업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역 청년들의 취업희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경제지표조사에서 제기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취업연계 방안은 점점 열악해지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 지원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지표조사에 따르면 부천시민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전문 인력 양성과 중·장기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체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취업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

## 7. 노동자 권리의식 교육 의무화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평등교육, 인권교육과 같이 각 사업장 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노동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노동권 향상과 권리보호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질 낮은 일자리라는 조건이 노동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가 형성될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노동참여가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다.

## 8.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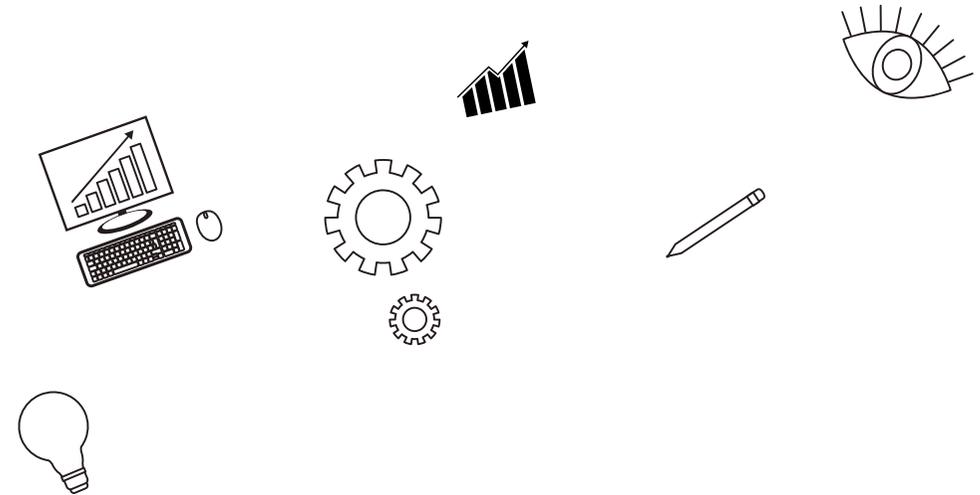
조사대상자에 따르면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실직 및 취업준비기간 중의 생활지원 강화이다. 이것은 조사대상뿐 아니라 노동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는 안정적인 생활에 균열을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다. 즉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정부가 수립해야 할 정책은 이른바 안정적인 지 못한 일자리에 취업을 한 경우이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든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 9. 정주의식 함양과 함께 안정적 삶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정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주거의 여부는 생활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고용상황과도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 현재의 주거불안은 불안정한 고용의 뒷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순환고리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 조사에서 제기된 우선과제 중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 청년취업/창업을 위한 종합지원 확대, 부천형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제도를 도입함과 함께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현재 도입되거나 시행된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천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은 당위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책 입안 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취업으로 내몰리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망 설계가 기본적인 시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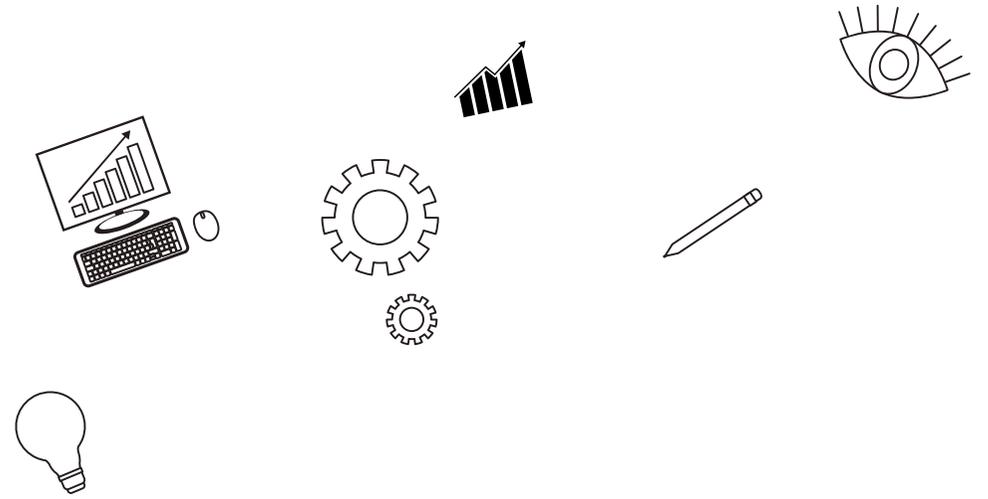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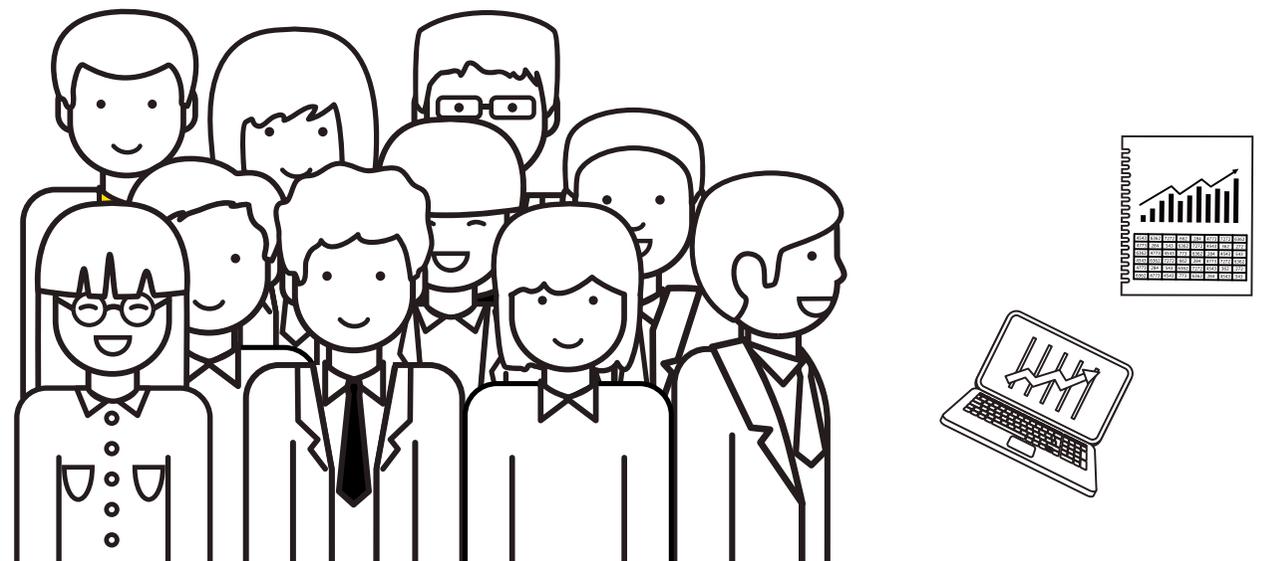
## 참고문헌

- 김유빈. 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노동리뷰, , 5-14.
- 김유빈. 2017. 「청년고용의 실태와 정책 시사점」. 젠더리뷰, 41, 19~26.
- 김종권. 2017.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1)”  
이슈리포트. 다른백년.
- 김혜경 외. 2016.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 김혜원 외. 2015. 「OECD 주요국가 청년 직업교육훈련 비교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 385~395
- 부천상공회의소. 2016. 「2016년도 부천시 경제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부천시 · 부천상공회의소.
- 양승광. 2017. 「청년고용정책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7, 87-109.
- 오미애. 2016. 「프랑스의 청년 실업과 청년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14, 72~82
- 이금진 외. 2017 「장애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 131~151
- 정홍준. 2016. 「부천시 청년정책 및 제도발굴을 위한 연구보고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주희진 외. 2017,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51~73
- 통계청. 2017. 고용동향 2017년 10월.
- 경기도. 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
- 부천시. 2016. 2016년 경제지표.
- 부천시. 2017. 2017 예산공시편람.
- 부천시. 2017. 2016 부천시 기본통계.
- 부천시. 2017. 2017 시정주요통계.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2017년 10월 인구및세대현황.  
부천시 2017년 10월 연령별 인구현황.
-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553 결정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 부록



〈부록1〉 부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2017년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연구사업

일련 번호				
----------	--	--	--	--

## 부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지원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천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  
 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삶의 질 개선에 귀중한 자  
 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설문문의 내용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맞거나 틀리는 식의 고정된 답  
 은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  
 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반드시 보  
 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협조해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7월

- 조사기간 : 2017. 7. 11.~8. 4.
- 조사대상 : 19~39세 이하 미취업자
- 조사책임 :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고현주
- 연구책임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장기성

문의처 조사담당자 : \*\*\*(032-0322-3814, 010-4873-5415)  
 (14566) 경기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원미어울마당 4층)

조사월일			지역	( )동	조사원		코딩·입력	
------	--	--	----	------	-----	--	-------	--







- ① 받았던 직원훈련 내용이 경쟁력이 없어서
- ② (재)취업하려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 ③ 원하는 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서
- ④ 직업훈련에서 얻은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적어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9. 귀하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9-1번 질문으로 이동)
- ② 있다 (☞ 10번 질문으로 이동)

9-1.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만 응답)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의 학력, 기술,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내가 원하는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내가 원하는 조건(임금 수준 제외)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이전에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직장)를 찾지 못해서
- ⑤ 쉬고 싶어서
- ⑥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 ⑦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 ⑧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어려워서
- ⑨ 창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0. 귀하가 일자리(직장)를 갖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② 나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해서
- ③ 경력이 부족해서
- ④ 성차별 때문에
- ⑤ 나이가 맞지 않아서
- ⑥ 학력, 기술, 자격이 맞지 않아서
- ⑦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 ⑧ 급여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⑨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⑩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 ⑪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⑫ 경기침체로 채용기회 자체가 줄어서
- 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 ⑭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1. 귀하가 일자리(직장)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직업안내기관
- ② 노동부 워크넷 및 잡영
- ③ 민간취업알선기관(잡코리아, 인쿠르트 등)
- ④ 신문, TV, 인터넷을 통한 기업 구인광고
- ⑤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 ⑥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서
- ⑦ 직접 방문해서
- ⑧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2. 귀하는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행동이나 증상이 나타납니까?

- 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
- ②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음
- ③ 대인관계 기피
- ④ 가족관계 악화
- ⑤ 자신감 상실
- ⑥ 우울증
- ⑦ 게임 등에 몰두하며 현실 도피
- ⑧ 신경질적인 반응
- ⑨ 탈모
- ⑩ 폭식이나 거식
- ⑪ 불면증
- ⑫ 지나친 음주
- ⑬ 자살충동
- ⑭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3. 귀하가 일을 하게 되면,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세요.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	매우 중요
1) 나의 발전과 성취	①	②	③	④
2)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3)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4) 해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5)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6)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7) 지식과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8)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	①	②	③	④
9) 소득이 높은 일	①	②	③	④
10)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	①	②	③	④
11) 육체적 노동을 적게 요구하는 일	①	②	③	④

14. 귀하는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② 기업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강화
- ③ 인턴십, 직장체험 제도 확대 \_\_④ 직업상담, 직업진로지도 강화
- ⑤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⑥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⑦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 ⑧ 새로운 직종 발굴 및 홍보
- ⑨ 실직 및 취업준비기간 중의 생활지원 강화
- ⑩ 취창업 지원 강화
- ⑪ 양질의 일자리 확대
- ⑫ 기타(적어주세요 : )

15. 귀하는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해 부천시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지원정책 추진 근거 및 중장기적 청년정책 추진
- ② 부천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위원회별 청년참여 확대(청년할당제 도입)
- ③ 공공부문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한 고용창출형 청년 일자리 확대
- ④ 청년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 법률구제서비스 확충
- ⑤ 중앙부처의 채용장려금 및 청년희망 통장 등 부천시 지원 확대로 고용촉진 장려
- ⑥ 취업 및 훈련정보, 직장체험 및 진로지도, 경력관리 등 청년취업·창업종합지원 확대(JOB-CALL)
- ⑦ 청년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주거지원비 및 화재보험료 지원 등)
- ⑧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제도 도입(서울시, 성남시)
- ⑨ 청년 빈곤퇴치를 위한 부채탕감 및 청년형 자활기업 육성으로 자립기반 조성(청년형 햇살가게)
- ⑩ 빈곤 청년 대상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빈곤청년 종합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생활기반 조성
- ⑪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커뮤니티 거점공간 마련(청년활동 플랫폼, 서울시 청년허브)
- ⑫ 청년주도 청년활동 아카이브 구축 및 청년문화존(zone) 지정, 운영(청년의 날, 청년축제 등)
- ⑬ 미취업자 종합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가구 자녀대상 무상접종과 지원 확대
- ⑭ 지역산업 연계 워킹홀리데이 추진(직장체험과 적정임금 지급)
- ⑮ 청년 문화/활동/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의 거리 지정 운영(청년 창업거리, 프리마켓 조성)
- ⑯ 기타(적어주세요 : )

16. 귀하는 청년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하는 청년의 노동권 및 권리보호 증진 노력
- ②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 노력
- ③ 청년 부채 탕감 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노력
- ④ 보건,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청년들의 생활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 ⑤ 청년 문화예술인의 상시적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 ⑥ 청년정책 추진의 체계적 지원 및 청년시설 설치, 운영
- ⑦ 청년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⑧ 청년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진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지원 등의 정책 개선 및 혁신사업
- ⑨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다양화와 지원, 청년 참여 네트워크 확대
- ⑩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 교육 및 지원 실행
- ⑪ 기타(적어주세요 : )

◎ 귀하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17. 귀하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다음 중 어떤 산업에 해당합니까?

- ① 제조업
- ②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③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④ 건설업
- ⑤ 도매 및 소매업
- ⑥ 운수업
- ⑦ 숙박 및 음식점업
- ⑧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⑨ 금융 및 보험업
- ⑩ 부동산 및 임대업
- ⑪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⑫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⑬ 공공서비스업(공공, 국방, 사회보장행정)
- ⑭ 교육서비스업
- ⑮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⑯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⑰ 기타(적어주세요 : )
- ⑱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18. 귀하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②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관
- ④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⑤ 법인단체(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⑥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체 없음
- ⑦ 기타(적어주세요 : )

19. 귀하가 일자리(직장)를 선택할 때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시간 임금근로자(하루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
- ② 전일제 임금근로자(주 40시간 근로)
- ③ 자영업창업 등 고용주
- ④ 프리랜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 )

20. 귀하가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에서의 급여(상여금 포함)는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만원

21. 귀하가 일자리(직장)를 선택할 때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해 주세요.

항 목	전혀 중요치 않다	별로 중요치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급여수준	①	②	③	④
2) 직장(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3) 회사 규모	①	②	③	④
4) 자신의 전공이나 보유한 기술과의 관련성	①	②	③	④
5) 업무 내용	①	②	③	④
6)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7) 직업자체의 미래 전망	①	②	③	④
8)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9)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10) 출퇴근 거리	①	②	③	④
11) 육체적 노동을 적게 요구하는 일	①	②	③	④

22. 귀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한 다음 항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항 목	안다	모른다
1) 취업할 때는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아야 한다	①	②
2) 근로계약 내용이 노동관계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다	①	②
3)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①	②
4) 아르바이트생도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①	②

항 목	안다	모른다
5) 임금체불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6)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	①	②
7)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	①	②
8)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①	②
9) 현장 실습생도 실습 중 당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①	②
10) 실업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업훈련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①	②

◎ 귀하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23.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만족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항 목	매우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나의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2) 나의 경제상태	①	②	③	④
3) 가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4)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5) 나의 전반적인 삶의 질	①	②	③	④

24. 다음 항목에 대해 최근 귀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직장생활에서 업무보다 사람관계가 더 어렵다	①	②	③	④
3) 건강 때문에 내 진로가 영향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족과 주변의 기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직장생활에 별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6) 일을 통해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7)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슬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11)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14) 겪은 실패 경험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성공이나 실패에는 노력보다는 운이 더 작용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5. 앞으로 귀하의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 ② 지금보다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
-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 ④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 ⑤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이다

◎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26. 귀하의 일상적인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에 있기보다는 외출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2) 주로 규칙적인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보다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여럿이 어울리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5)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7. 귀하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 또는 형제자매 도움
- ② 배우자의 수입
- ③ 지인 등의 도움
- ④ 예전에 모아둔 저축
- ⑤ 정부 지원
- ⑥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마련
- ⑦ 외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줄임
- ⑧ 기타(적어주세요 : )

28. 귀하의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만원

29. 귀하는 현재 부채(빚)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29-1번 질문으로 이동)
- ② 없다 (☞ 30번 질문으로 이동)

29-1. (부채가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가 부채(빚)을 갖게 된 원인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 마련
- ② 본인, 가족을 위한 의료비 마련
- ③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
- ④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
- ⑤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
- ⑥ 다른 부채(빚)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
- ⑦ 기타(적어주세요 : )

29-2. (부채가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빚) 총액은 얼마입니까?

약                      만원

29-3. (부채가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는 현재 신용불량자입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29-4. (부채가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29-5. (부채가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제도를 통해 부채를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②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
- ③ 참여할 생각이 있다                      ④ 반드시 참여하겠다

30. 귀하가 현재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문제                      ② 주거환경 문제
- ③ 정신적 건강                      ④ 신체적 건강
- ⑤ 가족과의 관계                      ⑥ 가족 이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 ⑦ 미래에 대한 준비와 걱정
- ⑧ 기타(적어주세요 : )

◎ 귀하의 혼인상황과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3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를 표시해 주세요.

- ① 미혼                      (☞ 31-1번 질문으로 이동)
- ② 기혼(동거 포함)                      (☞ 31-3번 질문으로 이동)
- ③ 이혼                      (☞ 31-3번 질문으로 이동)
- ④ 별거                      (☞ 31-3번 질문으로 이동)
- ⑤ 기타(적어주세요 : )

31-1. (미혼인 경우만 응답) 귀하는 결혼(동거 포함)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할 생각이 없음
- ② 상대가 있으나 결혼계획을 못 잡고 있음
- ③ 상대와 결혼할 계획임
- ④ 결혼할지 혼자 살지 결정하지 못했음
- ⑤ 상대는 없으나 결혼할 계획임
- ⑥ 기타(적어주세요 : )

31-2. (미혼인 경우만 응답) 귀하는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출산할 생각이 없음
- ② 출산할지 안할지 결정하지 못했음
- ③ 반드시 출산할 생각임
- ④ 기타(적어주세요 : )



**(2) 귀하는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부천시 우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번		체크
1	부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부천시 청년정책 추진	
3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4	청년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 법률구제 서비스 확충	
5	부천형 채용장려금, 청년희망 통장 도입으로 고용촉진 장려	
6	청년취업/창업종합 지원 확대	
7	청년주택 및 주거환경, 복지 등 개선 지원	
8	부천형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제도 도입(성남, 서울)	
14	지역산업 연계 워킹홀리데이 추진(적정임금 지급 등)	

**(3) 귀하는 부천시 청년 정책의 우선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번	설문항목	체크
1	청년 노동권 및 권리보호 증진 노력	
2	주거안정 및 주거지원 노력	
3	청년 부채 탕감 등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노력	
4	청년들의 생활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8	청년 취업 및 창업 등 교육상담, 자립지원 등 정책 개선 혁신사업	
10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 교육 및 지원 실행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3> 중앙정부 부처별 청년고용정책**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청업지원	교육훈련	복지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부</li> <li>노동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확산</li> <li>• NCS 개발 사업 확대</li> <li>•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자격인정 일자리 창출)</li> <li>• 세대간성장고용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공패키지</li> <li>• 청년취업이턴사업</li> <li>• 장년 원아카데미</li> <li>• K-Move(해외취업지원)</li> <li>• 중소기업취업유수사업</li> <li>• 대학항조일자리센터</li> <li>• 고용센터주원서비스</li> <li>• 취업지원서비스</li> <li>• 대학청년고용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후진화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li> <li>• 내일배움카드제</li> <li>•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li> <li>• 기술기반인력 양성훈련</li> <li>• 고용다목적보조프로그램</li> <li>• 중소기업특별프로그램</li> <li>• 직업훈련형인력 HRD 담당자 양성</li> <li>• 취업지원학교</li> <li>• 인턴십보행제</li> <li>• 일-교육-훈련-자격 연계</li> <li>• 고졸인력 양성</li> <li>• 기업대학</li> <li>• 채용조건형 계약학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환경개선</li> <li>• 폐기물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특례</li> <li>• 수도권중소기업지원</li> <li>• 중소기업 취업</li> <li>• 청년 희망사다리</li> <li>• 장학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창업교육</li> <li>• 학교기업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스터고 특성학교 기업</li> <li>• 맞춤형 현장학습 프로그램</li> <li>• 대학특성화사업</li> <li>•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li> <li>• 학부교육 진도대학 육성</li> <li>•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 <li>• W(인)플러시사업</li> <li>• 일반고등학교직업교육</li> <li>• NCS 기반 고교</li> <li>• 직업교육과정</li> <li>• 사내대학</li> <li>• 지역 혁신중인력 양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li> <li>•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li> <li>• 과기특성 2기</li> <li>• 대학 기술사업 화 선도모델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공계 전문기술 연구사업</li> <li>• 정보4차 산업인재 양성</li> <li>• 이공계 우수인재</li> <li>• 국가중요사업</li> <li>• 연구개발서비스전문인력 양성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li> <li>창조</li> <li>과학부</li> <li>과학기술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분야제도전장업 지원</li> <li>• 창조경제타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분야제도전장업 지원</li> <li>• 창조경제타운 운영</li> </ul>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복지	사회/문화
문화 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일자리 사업</li> <li>책방체육 지도자 일자리 지원 사업</li> <li>문화시설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기관 연수지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분야전문인력 양성사업</li> <li>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li> <li>국제회의산업 육성 사업</li> <li>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사업</li> </ul>		
중소 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물관 전문인력인자리 사업</li> <li>예술강사 일자리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전자일센터 운영사업</li> <li>청년 기획경영 지원</li> <li>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li> <li>여성벤처창업 지원 사업</li> <li>창업인프라 지원 사업</li> <li>스마트벤처창업학교</li> <li>보급로별창업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li> <li>대한민국창업리그</li> <li>창업기인지관 지원</li> <li>청년창업사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인재양성사업</li> <li>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 지원</li> <li>신항만출구 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li> <li>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 양성사업</li> <li>배출사업 공동채용 훈련사업</li> <li>창업대학원지원</li> <li>대학생 창업 아카데미</li> <li>예비창업자 창업아카데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젤 투자 매칭 펀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인식 개선사업</li> </ul>
기획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li> <li>공공기관고졸자 채용제도</li> <li>공공기관이전 지역인재 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형 개인 신용자산관리계좌</li> <li>중소기업해신인력 성과보상기금</li> <li>세계해택</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DA 청년인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 단)</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법조인해외진출 사업</li> </ul>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복지	사회/문화
행정 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활동지원</li> </ul>
농림 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농고인력육성 프로그램</li> </ul>		
산업 통상 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서 박사연구인력 채용사업</li> <li>중소 중견기업인턴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분야 인력양성사업</li> <li>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업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사업</li> <li>강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li> <li>생태 독성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li> </ul>		
여성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li> </ul>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li> <li>항공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li> <li>U-city 인력양성사업</li> <li>해외 건설현장 훈련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영</li> </ul>	
해양 수산업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희망물류 전문인력양성 인력양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계고 특성화 사업</li> </ul>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복지	사회/문화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일자리 발굴사업</li> <li>청년고용우수기업</li> <li>근로환경개선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li> <li>찾아가는 청년취업 라운드테이블</li> </ul>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OOD-JOB 청년인턴십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취월장 123장년 인력양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li> </ul>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CEO 육성사업</li> <li>지식기술청년창업 지원사업</li> <li>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li> <li>특특팩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일자리희망 한마당</li> </ul>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취업역량강화캠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보육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 훈련</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청년누빌</li> <li>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졸취업 활성화 사업</li> <li>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사업</li> <li>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li> <li>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협약 모종 지원 사업</li> <li>슈퍼맨펀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창업 프로그램</li> <li>창업프로젝트</li> <li>해안렌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li> <li>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li> <li>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사업</li> <li>경기도 대학생 옹환기술 창업 지원 사업</li> <li>창년 해외 역지구 창업 지원 사업</li> <li>경기 문화창조허브</li> <li>창업모욕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li> <li>시흥반월산단 산학융합 지원 사업</li> <li>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굿모닝론</li> <li>포괄 간호서비스 확대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청년문화창작소</li> </ul>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사업</li> <li>대학생부담활동운영</li> </ul>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복지	사회/문화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li> <li>2030 잔 매칭프로그램</li> <li>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기업 멘토 멘티 취업매치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창업활성화사업</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우수기업인증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CEO500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취월장 123청년일자리 사업</li> <li>수산업 전문기양성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인식개선 프로젝트</li> </ul>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li> <li>공공기관-대학교 잡 (JOB) 멘토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li> <li>창업꿈나무사업화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고명장유성 사업</li> <li>인문사회 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리큘럼사업</li> </ul>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CEO 육성사업</li> <li>지식기술청년창업 지원사업</li> <li>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li> <li>특특팩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일자리희망 한마당</li> </ul>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취업역량강화캠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보육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 훈련</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청년누빌</li> <li>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졸취업 활성화 사업</li> <li>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사업</li> <li>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li> <li>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협약 모종 지원 사업</li> <li>슈퍼맨펀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창업 프로그램</li> <li>창업프로젝트</li> <li>해안렌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li> <li>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li> <li>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사업</li> <li>경기도 대학생 옹환기술 창업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li> <li>시흥반월산단 산학융합 지원 사업</li> <li>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굿모닝론</li> <li>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청년문화창작소</li> </ul>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복지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 지원 사업</li> <li>경기 문화창업허브</li> <li>창업포육센터</li> </ul>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사업</li> <li>대학장부담활동운영</li> </ul>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기업 멘토링 취업매칭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창업활성화사업</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li> <li>2030 잔 매칭프로그램</li> <li>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CEO500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차별 123청년일자리 사업</li> <li>수산업 전문기양성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인사개선 프로젝트</li> </ul>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li> <li>공공기관-대학교 잡 (OB) 멘토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li> <li>창업꿈나무사업회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고명장육성 사업</li> <li>인문사회 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피링사업</li> <li>이공계 대학 산학관 커피링사업</li> </ul>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집콕서트</li> </ul>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훈련	복지	사회/문화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인턴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CEO 육성사업</li> <li>경북 청년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무역사관학교운영</li> </ul>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형 기업트랙</li> <li>경남하이(비) 트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아카데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청년 ECSI사업</li> <li>수문직 교육사업</li> <li>고졸예정자취업특화과정</li> <li>IT헬리트 양성사업</li> <li>셀계인지 디어 (CAD) 양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멘토링 콘서트</li> </ul>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연계형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체인턴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li> <li>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li> </ul>		

자료 : 2016년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정책, 고용노동부, 2016

<부록5> 취업진로상담 정책(진로지도/취업상담)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 청년실업성공 패키지	• 18~34세	•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원) 출신 고·대학교(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자기자신 및 심층상담( 여수당(최대 20만원))</li> <li>• 2단계: 직업훈련, 이력 등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월 28.4만원 한도 (최대 6개월))</li> <li>• 3단계: 취업지원 서비스(영문 참여수월 1회 2만원, 최대 6만원)</li> </ul>
정부 • 청년 채용의 날	• 만 18~34세	• 기업의 채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면접 기회 제공</li> <li>• 면접 피드백 지원</li> <li>•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사 마련</li> </ul>
정부 • 집단상담프로그램	• 만 19~34세	• 고등학교재학/고졸/대학재학/대졸예정/대졸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a : 장기실직 청년, 니트족, 취업의무이 늦은 청년이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해결에 관련된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li> <li>• 나 : 고졸청년이 첫 직장에 원활하게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li>•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 19~34세 청년 중 청년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기업, 연중, 자문의 특성을 이 해하고,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여, 나의 역량이 그 일자리에 적합한지를 인사서류와 면접으로 표현, 역량을 더욱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li> <li>• CAP+ 프로그램 : 만19세~44세 청년층 대졸(예정)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자기탐색, 의사결정 과 기업 탐색, 인사지원서류 준비, 면접준비 및 실전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li> <li>• 성장프로그램 : 취업준비생, 구직자들에게 구직트레드에 대처하기, 인사담당자에게 나의 장점 알리기, 일자licanting 찾기, 인사지원서류 작성법 및 면접실습, 취업결정을 극복하기, 취업노아리 구성하기 등이 가능 한 프로그램</li> <li>• 행복내일 프로그램 : 취업의무강화와 취업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들에게 가정중심 상담, 건강문제를 해결, 두 채 등 장애문제 고려, 심리적 문제를 감조한 프로그램</li> <li>• 영랑보존으로 인한 역량강화, 창업의 실제 등을 강조한 프로그램</li> <li>• 취업희망 프로그램 : 취업준비생, 구직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 시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계획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li> </ul>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 만 19~34세	• 고졸/대학재학/대졸예정/대졸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무고취</li> <li>• 기술직업능력(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향상</li> <li>• 취업기술 습득(취업목표설정-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면접기술 습득-취업전략세우기)</li> </ul>
정부 • 취업특강	• 만 19~34세	• 고졸/대학재학/대졸예정/대졸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li> <li>•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li> <li>• 성공하는 취업준비수업</li> <li>• 직업심리검사포괄상담</li> </ul>
정부 • 직업심리검사	• 만 12~34세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해석 상담</li> </ul>
정부 • 대학내취업지원 서비스	• 만 15~34세	• 무관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자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li> <li>• 대학 및 정부지원 취 ·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li> </ul>
정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 만 18세 이상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인자리 취업 : 취업, 창업 등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의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li> <li>• 일자리 중매자 : 지역 우수 ·유망기업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소개 ·연결해 주며, 기업들을 위해 채용지원 일자리 직 ·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li> <li>• 취업 트레이니 :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별 전문 기업에 우수한 훈련 인프리를 활용한 교육훈련, 직무체험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li> <li>• 인생 인큐베이터 : 청년들이 지역 전략산업,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트랙과 교육 과정을 제공</li> </ul>
정부 • 청년여성경력 개발지원	• 무관	• 대학재학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평등인식강화</li> <li>• 세대별 진로개발 및 경력설계 지원</li> <li>• 자문능력 : 리더십교육, 지역 특화 ·유망직종 직무능력 훈련 등</li> </ul>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부천시 청년취업인턴	만 15세~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39세 이하)	• 무관	• 미취업자	- 청년 • 부천시관외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은 운영기관(부동산공회익스, 부산강연자총협회)을 통해 채용예정기업을 소개받아, 인턴채용면접에 응시 •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간 계속 근무하면 고용유지지원금 100만원을 지원
부산시 청년취업인턴(해외)	만 15세~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39세 이하)	• 무관	• 미취업	• 해외 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들은 운영기관(부동산공회익스, 부산강연자총협회)을 통해 채용예정 해외 기업을 소개받아, 인턴채용면접에 응시 • 해외 인턴으로 취업한 청년은 3개월간 항공료와 체재비를 총 300~500만원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 (아시아권 300만원, 동유럽·아프리카·호주·남미권 400만원, 서유럽·북미권 500만원)
인천시 주력산업 진출형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만 39세 미만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대졸(예정)자	• 미취업자	• 청년취업지도프로그램 • 취업특강 • 학부모형행진로상담 • 인천지역 중소기업 현장면접 지원 • 현장채용관 운영을 통한 일자리 소개
진북 공공기관-대학교 잡 (JOB) 멘토링	• 무관	• 진라북도 내 대학 재학생 (유학·졸업생·유학생 제외)	• 미취업자	• 토·메티 구성: 멘토단 30명 (기관별 1명)과 멘티 150명 내외 (멘토 1인당 5~8명 멘티 매칭) • 멘탈 케어에 의한 멘토링데이와 단체참여 스페셜 멘토링 운영 • 기관탐방, 직업체험 등
전남 전남잡-매칭 데이	• 무관	• 무관	• 미취업자	• 잡매칭데이에 참가한 기업에 채용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 • 취업준비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 취업컨설팅과 직업상담
대구 대구대학리크루트투어	• 무관	• 무관	• 무관	• 대구 지역 우수 기업이 지역 청년인재를 직접 만나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채용관운영

〈부록6〉교육훈련 정책(교육/훈련비 지원)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기술·기능습득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 15세 이상	• 학력무관/기타 조건없음	• 미취업자	• 급속·기계·동력·전자/3개월 이상(의종·장기 훈련) • 훈련비 전액지원 • 매월 21~41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단, 출석을 80% 이상)
정부	내일배움카드훈련	• 15세 이상	• 학력무관/기타 조건없음	• 미취업자	• 1년간 실제 훈련비의 50%-8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월 최대 11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수로 후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동일한 직종에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장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사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환급
정부	고용디딤돌	• 15~34세	• 고졸/대졸	• 미취업자	• 대기업과 공공기관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대기업 또는 협력업체 등 취업기회 제공 • 월 120시간 훈련의 경우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 청년인턴과 연계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근무 시 취업지원금 지급
정부	청년취업이커데인	• 만 34세 이하	• 대졸/대졸예정/대졸	• 미취업자	•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16년 350개 과정*)을 무료로 제공 • 학점인정 (원대대학에 한함) • 연수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 지원 ('14년 취업을 62%)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단계 훈련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이커데인에 참여한 경우에는 월 28.4만원의 참여수당 지급 (최대 6개월까지)
정부	일학습병행제	• 무관	• 무관	• 재직자 (신규 입사 자)	•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가르치고 이 수자의 역량을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 중소기업의 인력맞춤형 훈련 (규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 무관	• 무관	• 미취업자	• 장기훈련(120시간, 1개월)에 참여하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지급 받음
정부	• 지역맞춤형이재양성·지원 프로그램(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무관	• 대학재학/대졸	• 무관	• 직업훈련 : 무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수료한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를 지원, 훈련을 통해 취업된 경우 6개월을 한도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장단지원 : 소정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멘토지원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 가점비 : 산업단지 주변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원룸, 오피스텔 등을 기숙사로 이용할 경우 열세의 열무를 지원합니다. • 출퇴근 :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	• 무관	• 무관	• 미취업자	•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140명) • 항공인턴십 지원사업(90명) • 항공기초인력양성사업(100명)
정부	• 기업대학	• 무관	• 무관	• 재직자	•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숙련 프로그램 •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훈련수당까지 지원 • 훈련수로 후 채용이 예정된 기업에 취업
정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무관	• 고졸이상	• 채용예정자	•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에 교육과정(학위과정)을 위탁하고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 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훈련비용 일체를 지원
정부	• 이공계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 무관	• 석사	• 미취업자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으로 연수 또는 IT를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 • 학사이하 : 기업현장 맞춤형 전문교육(4개월) 및 기업현장연수(2개월) 제공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 무관	• 고등학교 재학/대학(원) 재학	• 미취업자	• 현장실습·견학, 인턴, 전문가 특강 지원 • 장학금지원 • 물류장비 열습 기자재 구입 비 지원
정부	• U-CITY 인력양성	• 무관	• 대학재학/대학졸업	• 미취업자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IT 등 개별적인 산업 현장 전문인력 육성 • 취업자 과정 쿠퍼지움 무료교육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과정수료 후 U-CITY 관련기업 취업알선 및 인턴십 제공
정부	• 취업사관학교	•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고졸이하	• 미취업자	• 학업중단 기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하는 8개 분야*의 직무 훈련을 무료로 제공 • 훈련기간 : 6개월 이상, 700시간이상 •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수당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 •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정부	• 생산프로젝트메니저(PM) 양성사업	• 무관	• 대학(원)지학/대학(원) 졸업예정	• 미취업자	• 교육훈련비(국내집합교육비 및 중식비) 지원 • 교육 우수자에 대해 해외교육 실시 - 해외교육 일부 자부담(25명 내외)
정부	• 생활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	• 무관	• 대학재학/대학졸업	• 미취업자	• 미개척 생활물류군을 전공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무관	• 무관	• 재직자	• 콘텐츠 창조분야 전문인력을 양성
정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 무관	• 특성학교/전문대 및 대학생 (관광분야 전문자)	• 미취업자	•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 관광관련 수요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 관광관련 취업정보 확인, 이력서 등록, 권리, 채용박람회 참가 등
정부	국제회의 기획자 육성 프로그램	• 무관	• 무관	• 재직자	• 국제회의 기획자 단기 교육프로그램
정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 무관	• 대학생 이상	• 미취업자	• 문화예술 예비종사자(8명) 대상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인력들의 창의적 기획역량 및 행정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 대학원생 대상 문화담당 예술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 행정인력 문화예술교육 행정인력의 창의적 기획역량 및 행정역량 강화 프로그램(48시간, 12개월 지원) • 대학 · 대학원생)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과정으로, 탐방 및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문화도담* 프로그램, 50시간, 2개월 지원)
정부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 무관	• 대졸(인터넷 정보보호 관련 전공)	• 미취업자	• 정보보호 분야(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대학원(석사과정)을 다니며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 학급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 • 학기간 동안은 관련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 졸업 후에는 고용계약한 기업에 취업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하며 2년간 의무 근무
정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 무관	• 고졸예정/고졸(대졸예정/대졸/석사)	• 중소기업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 '중소기업 취업예정 청년' 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에게 학위 취득을 위한 등록금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위도 취득 • 중소기업청 : 2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중소기업 : 월 20만원의 인규활동 지원금 지원 • 21개 지역특화산업학과 석사과정 (전일제)이 운영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 무관	• 고졸(졸업예정자포 함)	• 무관	• ICT 폴리텍대학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시공 전문 기능인력 양성 사업으로서, 저렴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부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석 · 박사 학위과정 이수)	• 무관	• 대학졸업자/석사	• 재직자	•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 ·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경기도	경기도 지적 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무관	• 무관	• 미취업자	• 지식재산 분야 기초, 심화 실습 교육(전문기특강) • 교육비 및 교재비 경기도 지원 • 각종 교육충실운동본부무관 지원(대여) • 각종 교육과정 80%이상 이수시 경기도지사명의 수료증 발급 • 교육수료자 대상 지식재산분야 취업 알선 지원
경기도	경기도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G-베이스캠프	• 무관	• 무관	• 무관	• 창업희망자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관련 교육제공, 사무 공간 제공, 1:1 멘토링 제공 등 예비창업 맞춤 지원
부산	부산시 대학 학교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무관	• 대학재학생, 대학졸업 예정자	• 미취업자	•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과에 개설된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기간 동안 월별 관련서류 확인*을 거쳐 훈련비(15만원~20만원)를 지급 • 참여 학생은 대학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약정기업에 취업
경남	경남 IT엘리트양성	• 만 39세 이하	• 고교졸업(예정) 이상, 대학 재학생, 졸업생 포함	• 미취업자	• IT교육을 받은 뒤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 • ICT 기초, 직무능력개발, 직무활용
인천	인천시 주력산업 맞춤형 청년 취업지원활동	• 만 39세 미만	• 특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졸(예정)자	• 미취업자	• 인천지역의 제조기업 산업환경 수요와 청년의 학식을 고려하여, 청년취업지도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 리 매장과 취업장려금 지원

<부록7> 청년 창업 정책 (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 청년창업 사관학교	• 만 39세 이하 (기술경력 보유자는 49세 이하)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공간 : 안산, 천안, 광주, 경산, 청원에 소재한 창업사관학교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li> <li>• 창업코칭 : 창업전문가를 전담 교수로 배치하여 지도 관리, 기술사양화 및 전문지식 등을 단계별로 집중 교육 실시 (단계 별 집중교육 미 이수 및 이수시 각 부족시 퇴 교 조치)</li> <li>• 기술지원 :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li> <li>• 자금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li> <li>• 연계지원 : 우수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li> </ul>
정부	• 창업선도대학내 창업지원	• 무관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이벤트 사업화 지원) : 창업선도대학(전국 28개)의 창업지원프리를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 출원 등록, 마케팅 활동 등 창업시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지원(최대 7천만원)</li> <li>• 혁신형 창업교육 제공) : 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li> <li>•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제공) : 대학별로 창업현미당 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을 지원</li> </ul>
정부	• 청년창업창업 자금지원	• 만 39세 이하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리의 고정 융자금리(연 2.5%) 및 장기의 융자 기간(최대 3년미만) 으로 최대 1억원 융자</li> <li>• 장기간 창업실패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li> <li>• 복잡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신청이 가능 [단, 향후 대출시점에서의 서류(납세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결정 취소 가능]</li> <li>•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실무과정(2일)과 융자대상 선정시에는 경영실무 및 창업실전 교육과정 (3일) 참가 가능</li> </ul>
정부	• 창업이카데미	• 무관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에게는 창업창업 및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일반인· 예비창업자에게는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네트워킹을 제공</li> </ul>
정부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무관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사업공단,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 등을 제공</li> </ul>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정부	• 사회적기업 교육성	• 무관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도전정신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 후 선정하여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li> </ul>
정부	• 창업인턴제	• 무관	• 고졸/대제/대졸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7년이내 또는 벤처 인증보유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에서의 인턴근무를 지원</li> <li>- 청년은 인턴기간 중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는 등 적절한 고용관계 유지</li> <li>-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출장비, 식사비 등에 활용하도록 1년간 월 100만원 이내의 인턴 지원금 지원</li> <li>•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 별도 평가를 통해 청년에게 창업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li> </ul>
정부	• 글로벌창업기업 발굴·양성 프로그램 (해외 현지창업·진출 지원)	• 무관	• 무관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연수 및 현지보육, 해외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창업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li> </ul>
정부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만 39세 이하	• 무관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앱·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전국 4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에서 개발 및 사업화 등 창업 후 단계별 지원하는 프로그램</li> <li>•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 및 사업화까지 단계별 일괄 지원</li> <li>- 창업팀별 개발 공간 제공</li> <li>-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li> <li>- 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총사업비 70% 이내, 최대 1억원)</li> </ul>
정부	• 대학민국 창업리그	• 무관	• 무관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기를 발굴하여 시상</li> <li>• 홍보 및 투자기회 등 연계 지원</li> </ul>
정부	• K-ICT 본투글로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 스타트업에 멘토사로 선발해 법률, 특허, 회계, 해외 마케팅 등의 전문 컨설팅과 해외 데모데이, 로드쇼, 이커데미 등을 전폭 지원 사업개발과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li> <li>• 사무공간, co-working space 등 시월 및 연계 프로그램 제공</li> </ul>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울산	• 울산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	• 만 18세~39세 (지식 및 기술 창업 분야)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내부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노무사, 투자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부터 글로벌 진출 주기에 따른 one-on-one 컨설팅 서비스 지원 법률/특허/회계/마케팅/비지/노무</li> <li>•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 심문 증빙 교육</li> <li>• 국내 투자유치 기회 및 글로벌 진출 기반 제공</li> <li>• 현지 시장 사업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li> </ul>
대전	• 대전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만 20~39세 이력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역의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을 제공</li> <li>• 예비창업자와 1년 이내 창업한 청년창업가는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li> <li>•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각종 창업관련 행사와 세미나 내에 참여</li> <li>•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도 입주기업들과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li> <li>• 입주기업은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기업환경개선, 디자인·홍보물, 시장판로개척, 역량강화 교육 등 입주자가 적시성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창업관련 제반 분야의 지원</li> <li>• 입주기업에 대해 사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팀단 600만원 한도 내외로 지원</li> <li>•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서 시제품 제작을 하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협업 활성화 지원 (400만원 수준)</li> <li>• 지식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홍보용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li> </ul>
대구	• 대구청년창업 지원사업	• 만 15세~9세	• 무관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역 대학생과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자금을 지원</li> <li>- 대학·청년창업(60명) : 창업아이디어 심사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2천만원 차등 지원</li> <li>- 초기 창업 기업 (15개사) : 창업아이디어 심사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1억원 이내 차등 지원</li> <li>•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전문 멘토링을지원</li> <li>• 창업 후 성장을 위한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li> </ul>
경기도	• 경기도 예비창업 지원프로그램 G-베이스캠프	• 무관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대구광역시 거주 청년들은 창업지원금(500만원~800만원)을 제공</li> <li>•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CI(창업장센터 시설지원(창업공간, 사무실 공간, 회의실 등))</li> </ul>

주관	사업명	연령	학력	취업상태	내용
경기도	• 경기도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 만 20세~39세 청년	• 무관	•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본이 없고, 전직사게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3개월기의 해외 판매 전문교육과 배후로 및 수수료, 공동 사무공간까지 제공 지원하여 해외 전·상거래 관련 창업을 지원</li> </ul>
경기도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창업 지원사업	• 무관	• 경기도 소재1(거주)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구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하도록 지원</li> <li>• 예비청년창업팀에게 협약기간 동안 사무공간 제공</li> <li>• 아이템 개발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비, 재료구입비, 시제품 제작비 (금형 제작비, 외주용역비 등)</li> <li>• 1:1창업지도교수제, 맞춤형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비, 기술창업교육, 창업특상, 창업캠프, 교류회, 산학교류 지원</li> </ul>
경기도	• 경기도창업 프로젝트	• 무관	• 무관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공동 창업실 입주, 사업화지원금 (일반형 최대 1,500만원, 혁신형 최대 4,500만원) 등 경기도가 창업단계별로 맞춤 지원</li> <li>- 창업 멘토링, 창업 교육, 네트워크 및 창업 공간 제공</li> <li>-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 지원</li> <li>-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우대 등</li> </ul>
경북	• 경북청년 재창업지원	• 만 39세 이하	• 무관	•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착오로 창업에 실패한 뒤 다시 창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경상북도 지역의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 활동비 등을 지원</li> <li>• 팀 당 총 700만원 수준의 창업 활동비를 지원</li> <li>•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Re-Born 프로그램'을 운영</li> </ul>



#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